

조선주재 프랑스 외교관·선교사의 동학농민혁명·청일전쟁 인식과 대응*

김태웅**

〈목 차〉

머리말

I. 동학농민혁명 전야 프랑스 외교관과 선교사의 東學 인식

II. 외교관·선교사의 동학농민혁명·청일전쟁 대응과 조치

맺음말

〈국문초록〉

프랑스는 한국근대사의 전개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국가이다. 조선 정부의 천주교 금압과 프랑스 정부의 적극적인 선교가 1866년 병인양요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886년 조선과 프랑스가 수교한 뒤, 프랑스 외교관은 조선 정부의 군세외교 정책에 편승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무엇보다 천주교 선교를 지원하고 신자를 보호하고자 했던 것이다.

* 이 논문은 2024년 10월 15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동북아역사재단이 공동 주최한 청일전쟁·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국제학술회의 “청일전쟁·동학농민혁명 연구의 새로운 접근”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양자의 이러한 관계는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조선왕조의 체제 모순 및 서양 침략과 천주교에 대한 비판의식을 기반으로 성장한 동학이 민중들의 지지에 힘입어 급속하게 성장하고 1894년 농민혁명의 주체로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프랑스 외교관과 선교사들은 농민혁명을 전후로 하여 동학이 반체제와 반천주교를 지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동학의 활동을 예의주시하였다. 아울러 동학농민혁명에 이어 청일전쟁이 발발하자 중립적인 자세를 고수하면서도 선교사 구출과 신자 보호에 만전을 기했다. 나아가 조선 천주교를 관할하는 뫼텔 주교는 천주교 신부의 사망을 명분으로 삼아 조선정부에 압박을 가하였다.

한편, 프랑스 외교관과 선교사들은 동학농민군의 행태와 청일전쟁의 전개 과정을 관찰하는 가운데 동학농민군이 1894년 이전과 달리 실제로는 반일 반봉건을 지향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이들은 동학을 비롯한 반정부운동을 鄭鑑錄에 의거한 폭도들의 반천주교 운동으로 몰아가면서 자신들의 선교 정책을 정당화하고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주제어 : 정감록, 뫼텔, 군세외교정책, 교안, 반일 반봉건

머리말

1894년 2월(양력)에 발발하여 1895년 3월에 종료된 동학농민혁명은 국내 정국과 사회변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이고 한반도에서 선교 활동을 본격화하고자 했던 프랑스 선교사에게 충격으로 와 닿았다.¹⁾ 나아가 한반도에 대한 이해 관계가 상대적으로 적었음에도 자국 선교사를 적극 보호하고 지원했던 프랑스 외교관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물론 한반도를 둘러싸고 청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어 이들 나라의 동향과 조치가 가장 주된 요인임을 부정할 수 없다. 청일전쟁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1) 일자는 외교관의 보고와 선교사들의 각종 자료가 양력을 표기하고 있으므로 양력을 따랐다.

그러나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삼국간섭, 아관파천을 거치면서 조선정부의 均勢外交 政策이 제한된 범위이지만 본격화되는 가운데 서양 열강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동학농민혁명을 둘러싼 서구 열강의 인식과 대응은 이후 서구 열강의 한반도 정책을 가늠해 보는 중요한 잣대로 작용하였다. 특히 대한제국 정부의 산업화 추진과 프랑스의 동아시아 영향력 강화 시도 및 선교 확대라는 두 요인이 결합되면서 프랑스 선교사들의 활동이 공격적인 선교로 전환하고 향촌사회의 반발이 두드러졌다는 점을 고려한다면²⁾ 프랑스 외교관과 선교사들의 동학 인식과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대응은 동학농민혁명은 물론 이후에 발발한 1901년 濟州 教案을 비롯한 각종 교안을 이해하는 데 매우 요긴한 가늠자를 제공한다.³⁾

또한 동학과 동학농민혁명이 그들과 대척점에 서 있던 프랑스 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천주교 선교사의 활동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할 뿐더러 제3자의 눈을 통해 동아시아사와 세계사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동학과 동학농민혁명을 입체적이고 역동적으로 鳥瞰하는 인식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으리라 본다. 끝으로 양자의 이러한 상호 인식과 활동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 시기 이른바 상호관계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리라 기대된다.⁴⁾

2) 全旌海, 1999, 「광무년간의 산업화 정책과 프랑스 자본·인력의 활용」, 『국사관논총』 84; 김태웅, 2002, 「정부의 프랑스 정책과 천주교-왕실과 뮌헨의 관계를 중심으로」, 『역사연구』 11, 역사학연구소; 김태웅, 2011, 「조선 말, 대한제국기 뮌헨 주교의 정국 인식과 대정치권 활동」, 『교회사연구』 37, 한국교회사연구소.

3) 李元淳, 1973, 「朝鮮末期 社會의 「教案」 研究」, 『歷史教育』 15(『韓國天主教史研究』, 한국교회사연구소, 1986 수록); 金洋植, 1989, 「1901年 濟州民亂의 再檢討」, 『濟州道研究』 6; 朴贊殖, 1995, 「韓末 天主教會와 鄉村社會-「教案」의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西江大學校 博士學位論文; 張東河, 2000, 「韓末 教案의 성격」, 『민족사와 교회사』, 한국교회사연구소.

4) 이 글은 국사편찬위원회가 프랑스외무부문서 중 조선 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번역한 『프랑스외무부문서』와 함께 한국교회사연구소에서 번역한 『뮌헨주교일기』에 주로

I. 동학농민혁명 전야 프랑스 외교관과 선교사의 東學 인식

1. 외교관의 조선 정국 인식과 파리의방전교회의 선교 강화

조선주재 프랑스 외교관과 파리의방전교회 선교사(이하 프랑스 선교사로 줄임)들은 1886년 조불수호통상조약 체결 이래 조선정부의 천주교 정책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⁵⁾ 왜냐하면 1866년 병인사옥과 이후 가혹한 금압에 따른 트라우마가 컸기 때문이다. 더욱이 1886년 수호통상조약 체결로 조선 정부의 선교사 보호가 따랐지만 유생들의 배척과 관료들의 탄압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프랑스 공사관은 일찍부터 선교 문제에 개입하였다. 그들이 본국 외무부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1870년 6월에 일어난 ‘天津虐殺’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우려할 정도였다.⁶⁾

의존한 까닭에 프랑스 정부의 동아시아 정책과 파리의방전교회의 동아시아 선교 방침을 염두에 두면서 프랑스 외교관과 선교사들의 인식과 활동을 분석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음을 미리 밝혀둔다. 차후 이 주제를 동아시아사와 세계사 차원에서 심층 연구하기 위해서는 프랑스근대사 연구자, 중국근대사 연구자들과의 학제 작업이 필요하다.

5) 동학농민혁명 전후에 부임한 프랑스 외교관은 정부위원 플랑시(1888.6~1891.6), 대리공사 로셰(1891.6~1892.3), 프랑탱(1892.4~1894.2), 르페브르(1894.3~1896.4)였다. 이에 관해서는 현광호, 2011, 『서구 열강과 조선』, 채륜, 12~13쪽 참조.

6) 『프랑스외무부문서 2 조선 I·1888』 【6】 외국인들의 어린이 유괴 소문에 대한 상황 보고(1888.6.23.).

1869년 프랑스 천주교에서 운영하였던 자선 기관이 자선이란 명목으로 많은 유아를 수용하였다. 이때 중국인들 사이에서 천주교 교회가 유아를 사들인다는 소문이 돌았고 심지어 천주교 신자들이 유아를 유괴했다는 유언비어가 광범하게 퍼졌다. 그러나 프랑스 영사 퐁타니에가 중국 인민의 조사 요구를 거부한 뒤 귀환 도중에 군중을 향해 발포했고 이로 인해 격분한 군중들에 의해 살해당했다. 그 밖에 영사 수행원 3명과 프랑스 선교사, 수녀 12명이 살해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윤세철, 1982, 「天津教案과 청조 외교의 변용」, 『역사교육』 30·31, 191~201쪽; 신의식, 2002,

따라서 프랑스 외교관과 선교사들은 천주교 정책을 결정하는 조선정부의 동향과 정국 변동을 수시로 보고하였다. 파리외방전교회가 1881년에 파리 본부에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의 소식에 의하면 현재 조선에는 새로운 두 개의 사상이 대립되고 있다. 조선 정부와 국민은 신앙의 자유에 관용을 베풀자는 의견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으며, 은근히 서양과 접촉하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 반면 조선 유학자들과 유력한 관장들은 지금까지 조선 백성들이 다른 외국과 접촉하는 것을 방해해 왔을 뿐 아니라 위험한 이웃나라들의 야심에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맹목적이고 이기적인 정책을 계속하려 하고 있다. 바로 이들의 정책이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과 선교사들의 피로 이 땅을 물들이게 했던 것이다.⁷⁾

프랑스 선교사들은 당시 조선 조야를 천주교 관용파와 배척파로 구분하면서 후자의 행동을 맹목적이고 이기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프랑스 외교관과 선교사들이 이후 접촉을 꾀한 중점 대상은 국왕을 비롯한 집권층에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조선 정부 역시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을 겪으면서 청국과 일본에 의존하는 외교 전략이 매우 위험함을 감지하고 외교의 다변화와 균세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 외교관과 선교사들의 이러한 전략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 특히 청국의 내정 간섭이 심해지고 외교 사안에 깊이 관여하면서 고종으로서는 이러한 난국에서 탈출하고자 하였다.⁸⁾ 그것은 고종 스스로 프랑스 정부에 대리 공사나 공사

「曾國藩의 西教 인식 -태평천국과 楊洲·天津教案 처리를 중심으로」, 『교회사연구』 18, 191~195쪽 참조.

7) 최석우, 1983, 「COMPTE RENDU de la Societe des M.E.P. - 파리외방傳敎會年報(1878~1894)」, 『교회사연구』 4, 174~175쪽.

8) 고종의 자주화 정책은 박정양의 주미공사 파견을 비롯하여 곳곳에서 감지되었다. 청은 고종의 이러한 외교 정책을 강력하게 견제하면서 속국화 정책을 강화하였다.

를 서울에 파견해 주길 강력하게 요청한 데서 짐작할 수 있다.⁹⁾ 이어서 1888년 콜랭 드 플랑시(Victor Collin de Plancy)가 정부위원으로서 영국과 달리 서울에 부임하자 조선 정부는 그를 극진하게 대우하였다.¹⁰⁾ 프랑스 선교사들도 본국 정부의 관리 파견이 자신들의 선교 확대에 도움을 주었음을 인정했다. 단적인 예로 1886년 6월 4일 조선 정부와 프랑스 정부가 「조불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선교사들은 護照[여권]만 가지면 조선 국내를 자유로이 여행하면서 ‘敎誨’ 즉 선교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을 받아낸 점이다.¹¹⁾ 특히 제4관 6항 “호조 없이 상기한 경계 이외로 여행하든지, 혹은 내지에서 어떤 중죄 또는 경죄를 범한 프랑스인을 체포하면 가장 가까운 프랑스 영사에게 인도하여 처벌케 한다”는 조항은 사실상 治外法權을 보장받은 셈이다.¹²⁾ 선교사들은 파리외방전교회 본부에 보내는 보고서에서 “서울에 외교사절을 임명한 것이 비록 우리에게 조약에 명기되지 않은 자유를 주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힘과 안전의 근원이 되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¹³⁾ 물론 이러한 선교의 자유가 조선인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선교의 자유는 조선 정부와 프랑스 정부의 관계 여하에 따라 신앙의 자유를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가능성을 높였다. 반대로 천주교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교조 최제우가 처형을 당하고 정부

이에 관해서는 김형중, 2024, 『19세기 후반 한중관계사론: 천조상국과 속국자주의 딜레마』,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701~716쪽 참조.

9)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2 조선 I·1888』 【3】 조선정부의 환영, 알현 등 플랑시의 서울 도착 직후의 상황보고(1888.6.13.). 이와 관련하여 최석우, 1982, 「한불조약과 신교자유」, 『한국교회사의 탐구』, 한국교회사연구소; 이원순, 1992, 「한불조약과 종교자유 문제」, 『조선시대사논집』, 느티나무, 205쪽 참조.

10) 현광호, 2019, 『프랑스가 본 한국근대사』, 선인, 32쪽.

11) 한국교회사연구소, 1984, 『서울교구연보(I) 1878~1903』, 천주교명동교회, 103쪽.

12) 이원순, 앞의 논문, 206쪽; 장동하, 2016, 「한불조약과 종교 문제」, 『한국 근대사와 천주교회』, 가톨릭출판사, 264~267쪽.

13) 한국교회사연구소 편집부, 앞의 글, 217쪽.

의 邪教 禁壓에 따라 신앙의 자유는 물론 선교의 자유마저 억압받던 東學으로서의 천주교에 대한 정부의 이러한 방침을 수긍할 수가 없었다. 나아가 동학이 사상적으로는 반천주교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천주교와의 관계 역시 매우 적대적일 수밖에 없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1892년 전라도 삼례집회에서 천주교에 대한 적대감과 정부의 이중 잣대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¹⁴⁾

물론 조선정부와 프랑스 선교사의 관계도 우여곡절을 거쳐야 했다. 조선인들은 반상을 가리지 않고 기독교를 비롯한 서양 종교와 문화의 전파를 우려하였으므로 향촌 사회에서는 소요가 자주 일어났다. 심지어 서양인들이 인육을 먹고 산다는 풍문이 돌자 배외 분위기가 고조되었고 이럴 때마다 프랑스, 미국, 러시아 군함의 함장이 서울에 해병대를 파견하곤 하였다. 1888년 6월 플랑시는 「외국인들의 어린이 유괴 소문에 대한 상황보고」에서 “우선 우리는 여기서 퍼진 소문과 최근에 천진과 북경에서 발생한 것 사이에 존재하는 민심 동요의 유사성에 놀랐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¹⁵⁾ 프랑스는 조선에서 일어난 일련의 배외 사태를 중국에서 일어난 일련의 教案에 견주었던 셈이다.

이때 조선주재 외교관들은 이러한 소문에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조선 정부에 요청하여 포고문 초안을 보냈다. 이에 따르면 유괴범과 유언비어 유포자는 물론 외국인 공격자를 즉결방식으로 가혹하게 처벌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조선정부도 이런 요구를 적극 수용하였다.¹⁶⁾ 이어서

14) 박맹수, 2007, 「敎祖伸冤運動期 參禮集會에 대한 再檢討」,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8, 11~12쪽.

15)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2 조선 I·1888』 【6】 외국인들의 어린이 유괴 소문에 대한 상황보고(1888.6.23.). 이와 관련하여 박한민, 2018, 「1888년 ‘유아납치’ 소동이 전말과 각국의 대응」, 『역사와 현실』, 한국역사연구회, 438~442쪽 참조.

16)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2 조선 I·1888』 【6】 외국인들의 어린이 유괴 소문에 대한 상황보고(1888.6.23.).

조선정부는 외교관들에게 공동서한을 보내 앞으로 “외국인들에 대한 아주 사소한 박해도 없어질 것입니다”라고 통지했다.¹⁷⁾ 특히 프랑스 정부는 파리와방전교회 선교를 뒷받침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우선 조선주재 프랑스 공사관이 본국에 파리와방전교회의 선교 상황과 신부들의 활동, 천주교 신도 현황 등을 수시로 보고하면서 선교사 보호에 만전을 기울였다. 특히 “이 교회가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 조선에서도, 프랑스 국가와 교회의 공통된 이해 관계 속에서 우리 정책의 보조자가 되어 주기를 바람”을 언급함으로써 프랑스 정부의 제국주의 정책을 뒷받침할 수단으로 천주교를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¹⁸⁾ “종교적인 이해 관계는 분명 프랑스의 이해 관계와 조금도 분리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조불수호통상조약이 발효되어 치외법권을 인정받기 직전까지는 파리와방전교회의 공격적인 선교를 자제하여 “반그리스도교적인 격정이 잠잠해지도록 내버려주는 것이 매우 좋”다는 서한을 보냈다.¹⁹⁾ 또한 프랑스 정부는 청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하여 조선주재 프랑스 공사관에 조선 정부의 주권 국가 외교 노력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자주 강조하였다.²⁰⁾

그리하여 프랑스정부는 외교적으로는 청불 관계를 위주로 조선정부를 상대하되 파리와방전교회의 조선 선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침을 견지했다. 그 결과 청국 편향의 외교를 견지했거니와 선교의 경우, 청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파리와방전교회의 학교 건립과 병원

17)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2 조선 I · 1888』 【6】 외국인들의 어린이 유괴 소문에 대한 상황보고(1888.6.23.).

18)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1 1854~1899』 【40】 조선 내의 카톨릭 교회 상황에 대한 보고(1886.6.5.).

19)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1 1854~1899』 【40】 조선 내의 카톨릭 교회 상황에 대한 보고(1886.6.5.).

20)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2 조선 I · 1888』 【1】 조선주재 프랑스 정부위원으로 부임하는 플랑시에게 내린 훈령(1888.4.6.).

설립 등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하였다.²¹⁾ 그 결과 치외법권은 물론이고 천주교 신자 보호, 교회재산권을 둘러싼 논란, 향촌 사회 세력과의 갈등이 끊임없이 야기되었다.²²⁾

한편, 프랑스 외교관과 선교사들은 자신들이 펼쳐 나아갈 조선의 정국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가장 크게 와닿은 조선의 가장 큰 문제는 한해와 홍수 등의 자연재난, 매관매직, 관리들의 불법수탈, 국가재정의 위기 등이었다.²³⁾ 또한 정계에서 은퇴했지만 여전히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흥선대원군의 동정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대원군을 경계하는 고종에 중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대원군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가 외교관으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딜레마였다.²⁴⁾ 특히 대원군이 다시 집권할 경우, 기존의 수호통상조약이 파기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그러나 프랑스의 이익을 제고시키거나 선교 확대에 도움이 된다면 조청 관계라든가 조일 관계의 빈틈을 노려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하였다. 특히 조청 관계의 위기를 이용하여 파리외방전교회의 선교를 직접적으로 지원하였다. 예컨대 청국 침입설과 고종폐위설로 인해 조선 정계가 공포의 도가니에 빠지자 프랑스 정부는 청의 조선 정책을 예의 주시하며 청국 북양대신 이홍장의 조선 인식을 다음과 같이 본국

21)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2 조선 I·1888』 【10】 가톨릭에 관해 프랑스 공사와 조병식과 갖은 대담 내용(1888.7.6.).

22)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2 조선 I·1888』 【39】 선교단이 매입한 토지로 야기된 문제에 대한 보고(1888.11.30.);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3 조선 II·1889』 【35】 김창여의 인계를 요구한데 대한 대응 전말을 보고(1889.6.27.).

23)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2 조선 I·1888』 【40】 기근과 홍수 및 함경도에서의 반란에 대한 보고(1888.12.4.);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4 조선 III·1890』 【86】 조선인들의 러시아령 이민(1890.9.11.).

24)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3 조선 II·1889』 【11】 대원군의 현 처지와 그와의 접견에 대한 보고(1889.2.8.).

에 보고하였다.

이흥장이 한 유명한 문서에서 언급하기를, “조선은 요녕[遼寧], 길림[吉林]과 아무르의 세 동쪽지역을 보호하는 벽이다. 그 나라와 우리는 입술과 이빨과 같은 것이고, 그 나라에 불행한 것은 청국에도 불행한 일이다”라고 하였습니다.²⁵⁾

이흥장의 이러한 언설은 청국의 조선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언설로 프랑스는 이러한 언설을 근거로 청국의 조선 정부 개입을 우려하고 있었다.

이어서 조선 정부는 1889년 2월 19일과 21일, 23일 고위 관료 민영환, 이종건, 한규설을 프랑스 공사관에 보내 프랑스 정부의 협력을 구하고자 하였다.²⁶⁾ 이에 프랑스는 조약 규정의 한계 내에서 프랑스 정부는 제공하기로 한 도의적 협력을 약속하였다. 다시 민영환은 벨기에와 스위스의 경우를 들어 중립국 방안을 언급했고 프랑스는 여러 나라들로 둘러싸인 이들 나라와 청국과 맞대고 있는 조선과는 상이하다고 대답하였다. 사실상 직접적 개입을 거부한 셈이다. 이에 민영환은 프랑스에게 군함 파견을 요청하였다. 이때 민영환은 청국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영국과 독일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 믿지 않는다고 발언하기까지 하였다. 심지어 “귀국 정부가 우리를 지지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귀하가 원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발언까지 하고야 말았다. 이러한 발언은 프랑스 정부가 조선 정부와의 외교 협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지위를 선점했음을 의미하였다. 이때 프랑스는 민영환에게 노골적으로 발언하지 않고 본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자신의 구상

25)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3 조선Ⅱ·1889』【12】 주미 조선 공사 박정양의 귀국문제와 청국 군대의 조선 개입 소문 보고(1889.2.10.).

26)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3 조선Ⅱ·1889』【16】 청국 개입에 대해 프랑스의 도움을 요청한 민영환과의 회담 내용 보고(1889.2.23).

을 털어놓았다.

우리 협력의 대가는 아마도 기독교인에 대한 신앙의 자유와, 어쩌면 영토의 양도였을 것입니다. 저는 민 장군께서 그 주제에 대해 다시 언급할 것을 예상하고 상대를 납득시키지 못하면 적어도 포기하기에 충분한 논리를 필요하면 계속 펼치면서 지금까지의 저의 위치를 고수할 것입니다.²⁷⁾

프랑스 공사관측은 애매모호한 자세를 취하면서 최대한의 이익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조선 정부와 프랑스 정부의 이러한 관계는 이후 파리외방전교회의 선교 강화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조선 정부의 원세개 소환 요청에 이어²⁸⁾ 1889년 2월 원세개 정변설이 퍼졌으며²⁹⁾ 1890년 서울 상인들의 철시 투쟁, 국가재정의 위기, 신정왕후 조대비의 사망 등으로 조선 정국이 동요하자 미국 정부는 조선정부의 요청을 받아 군함을 급파한 뒤 수병을 상경시켰다.³⁰⁾ 이때 조선주재 독일 공사관은 프랑스 공사관측의 청국침입설과 상이한 견해를 본국 정부에 보고하였다.³¹⁾ 1890년 6월 7일 보고에 따르면 왕실이 국장에 따른 경비를 상인들과 농민들에게 전가함으로써 야기되는 폭동을 방지하기 위해 미 수병의 상경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열강들의 이러한 대응은 조선 정부를 외교상

27)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3 조선Ⅱ·1889』 【16】 청국 개입에 대해 프랑스의 도움을 요청한 민영환과의 회답 내용 보고(1889.2.23.)

28) 구선희, 2009, 「조선을 근대 식민지로 만들려 했던 중국인, 위안스카이」, 『역사비평』 86, 357~358쪽.

29)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3 조선Ⅱ·1889』 【20】 광서 황제 결혼을 계기로 원세개가 개최한 파티 및 정감록에 관한 보고(1889.2.28.).

30)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4 조선Ⅲ·1890』 【65】 제물포 정박 스와타라호 미 해병대 50명의 서울 파견(1890.6.7.)

31) 고려대학교 독일어권문화연구소 편, 2019, 『독일어외교문서 한국편』, 「24. 조선의 대왕대비 서거와 미 해병대의 서울 도착」(1890.6.7.), 보고서 참조.

수세에 물리는 형국으로 몰아넣었다. 프랑스 정부 역시 조선 정부의 이런 위기를 적절하게 활용하였다.

이에 파리의방전교회 서울 교구를 맡고 있는 뮈텔 주교는 1891년 파리 본부에 보고하길 “선교사들이 전국을 돌아다닐 수 있게 하는 통행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마지막 장애가 제거되기를 기다리면서 이것을 널리 활용”할 것이라 하였다.³²⁾ 천주교의 공격적인 선교가 다시 힘을 받아 본격화될 것임을 예고하였다. 그리하여 프랑스 선교사들은 치외법권과 재산권을 비롯한 각종 소송을 벌이거나 천주교 신자들을 옹호하는데 앞장섰으며 결국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켰다. 물론 선교 확대가 순풍만 타지 않고 난관을 겪기도 하였다. 1891년 1월 프랑스 선교사가 전라도에서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다.³³⁾ 그럼에도 프랑스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이 문제를 일방적으로 해결하였다. 예컨대 1891년 대구에서 추방당한 로베르 신부 사건의 경우, 뮈텔 주교의 중재로 프랑스 대표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사이의 대화를 통해 해결하였다.³⁴⁾ 이러한 조기 해결은 3월 21일, 때마침 프랑스 砲艦 아스픽 호의 급작스런 출현이 플랑시의 표현대로 “분쟁의 해결을 촉진시켰”기 때문이다. 당시 조선정부는 포함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기도 전에 타협으로 마무리지었던 것이다. 뮈텔은 대구에서 축출된 로베르 신부가 신임 감사 이헌영으로부터 후한 대접을 받으며 대구로 돌아간 일을 두고 천주교의 ‘완전한 승리’라고 표현했다.³⁵⁾ 그리하여 1891년 2월 23일 플랑시는 서울에 부임한

32) 한국교회사연구소 편집부, 앞의 글, 255쪽.

33)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5 조선Ⅳ·1891~92』 【2】 전라도에서 발생한 프랑스 선교사 폭행 사건(1891.1.19.).

34)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5 조선Ⅳ·1891~92』 【18】 대구에서 추방당한 로베르 신부 사건과 관련하여 뮈텔 주교의 중재로 프랑스 대표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간 협상(1891.4.2.). 이와 관련하여 양인성, 2014, 「1891년 대구 로베르 신부 사건 연구」, 『한국 천주교사 연구의 성찰과 전망』(한국교회사연구소 편), 한국교회사연구소 참조.

35)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부설 영남교회사연구소 편, 1995, 『대구의 사도 김보록(로

뫼텔이 느낀 소감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조약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조선 개항장에서 정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으며 조선정부의 관용으로 천주교도들의 신앙 생활 뿐만 아니라 종교 교육을 하는 자들도 상당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어 신임 주교는 천주교로 개종한 조선인들이 주교를 만나보기 위해 공공연히 열성을 드러내는 것과 선교회가 완성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규모가 큰 건물들을 보고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³⁶⁾

플랑시 역시 뫼텔의 의견을 공감하면서 신앙 자유의 확대와 함께 선교의 확산이 본격화되었음을 실감하였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프랑스 선교 박해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플랑시는 본국에 군함을 요청하였다.³⁷⁾ 심지어는 전라감사의 면직을 요청하였다.³⁸⁾ 우선 이 과정에서 플랑시는 감사의 공식적인 처벌과 감봉을 요구하였고 이 고위 관리의 친척인 왕비가 강경히 반대하고 나서자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독판은 강경한 플랑시 씨의 태도와 왕실 사이에서 난처해졌다. 이어서 아스픽 호가 제물포에 닿을 내리던 날 독판은 주교 뫼텔을 만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에 나서줄 것을 부탁했다. 그는 화해를 하게 될 경우 조선의 천주교도들이 누리게 될 이익을 강조했다. 조선의 관리가 주교를 방문한 것 자체가 큰 양보로 여겨졌다.³⁹⁾

베르)신부 서한집-1』, 128쪽.

36)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5 조선Ⅳ·1891~92』 【9】 조선교구 뫼텔 신임 주교의 서울 도착과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독판(1891.3.7.).

37)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5 조선Ⅳ·1891~92』 【10】 조선 남쪽 지방에서 일어난 프랑스 선교사 박해 보고와 프랑스 군함 파견 요청(1891.3.10.);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5 조선Ⅳ·1891~92』 【24】 전라도 선교사 문제 해결로 제물포에 파견되었던 아스픽 호(1891.4.24.).

38)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5 조선Ⅳ·1891~92』 【11】 프랑스 외무부의 선교사 박해 처리에 대한 지시(1891.3.11.).

이어서 프랑스 외무부는 1891년 9월 조선주재 프랑스 공사관에 조선 천주교 신자 보호를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귀하는 요즘 청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로 보아 심각해 보이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을 조선 정부에 납득시키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모든 열강 대국들이 충분히 일치를 본 우리의 눈에 기독교 전례와 기독교인, 기독교인들의 재산에 안전을 보장할 조치가 충분치 않을 경우, 여러 번 세계 알린 소요들의 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지체없이 실천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을 것을 귀하의 강력한 항의로 조선 정부를 이해시켰다는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⁴⁰⁾

프랑스 정부는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안을 염두에 두고 조선에서도 천주교 신자 보호에 주안을 두었던 것이다. 이제 프랑스 선교사 보호와 지원을 넘어서서 조선인 천주교 신자까지 보호하기 시작했다. 특히 동학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던 전라도 일대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학대를 당하자 프랑스 공사관은 적극 개입하였다.⁴¹⁾ 장성 고을 향촌 양반들이 신부와 접촉하는 조선인들을 협박하자 프랑스 공사관이 조선 정부에 대응 조치를 요구했다. 그것은 프랑스 공사관이 장성 교안에서 향촌민들이 자국 선교사들을 간접적으로 공격하고 신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향후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조불수호통상조약 위반을 근거로 적극 개입하였던 것이다. 특히 프랑스 공사관과 뮌헨은

39)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5 조선Ⅳ·1891~92』, 【32】 제물포 파견 프랑스 포함 아스픽 호의 임무 완수(1891.5.28.).

40)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5 조선Ⅳ·1891~92』 【45】 프랑스 외무부의 조선 가톨릭 교도 보호 지시(1891.9.12.).

41)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5 조선Ⅳ·1891~92』 【49】 전라도 장성 지방에서 일어났던 가톨릭 교도 학대 문제의 해결(1891.10.10.). 이와 관련하여 조광, 2003, 「19세기 후반 서학과 동학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동학학보』 6, 동학학회, 67~75쪽 참조.

중국 만주에서 선교사들이 학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 문제에 민감한 터였다.⁴²⁾ 이후 조선 정부가 천주교 신자를 학대한 향촌 양반은 처벌하였고 프랑스 공사관은 조선 정부에 감사를 표했다.⁴³⁾

전라도 지방의 이러한 교안은 당시 정부의 온갖 탄압에도 불구하고 동학이 겨우 자리를 잡아가던 전라도 동학도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단적인 예로 1893년 3월 3일(음력 2월 14일) 밤 서울 길포드 학당의 문에 기독교를 배척하는 방문을 붙였는데 여기에 “지금은 異道가 횡행하여 백성을 誣惑하니 이것이 一亂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⁴⁴⁾ 심지어 ‘서학의 무리들’ 즉 천주교 신자들이 동학교도를 해치고자 한다는 소문이 돌아 천주교에 대한 반감이 커져가고 있었다.⁴⁵⁾ 그리고 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동학과 달리 천주교의 입장을 두둔하는 중앙 정부의 이중 정책에 불만이 커져 갔을 것이다. 나아가 교조신원을 통해 동학의 공인과 종교 자유의 확보를 급선무로 여겼을 것이다.

2. 외교관과 선교사의 동학 인식과 대응

프랑스 외교관과 선교사들은 프랑스 국익과 선교 확대에 힘을 기울이면서 일찍부터 자신들의 이러한 방침을 방해하거나 도전할 세력으로 東學을 지목하였다. 특히 동학이 조선 왕조를 전복할 세력으로 등장하여 반역을 획책하였다는 첩보는 큰 충격이었다. 1889년 12월 플랑시가 본국에 보고한 내용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42) 『뮈텔주교일기』 I, 1891년 12월 19일.

43)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5 조선IV·1891~92』 【102】 프랑스 외무부에서 가톨릭 신자 체포와 관련한 주한 프랑스 대표의 강력한 조치에 만족 표명 (1892.11.8.).

44) 『구한국외교문서』 10(美案 1), 고종 30년 2월 18일. 이와 관련하여 배항섭, 2002, 『조선후기 민중운동과 동학농민전쟁의 발발』, 경인문화사, 163~164쪽 참조.

45) 한국학문헌연구소, 『天道教會史草稿』, 『東學思想資料集』 1, 아세아문화사, 1979, 445쪽. 이와 관련하여 배항섭, 위의 책, 149쪽 참조.

서울에서는 왕이 희생자가 될 뻔했던 습격이 화제입니다. 이[李]라는 이름의 한 내시가 그를 암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체포가 진짜 음모를 알아내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11월 25일 밤에, 음모자들은 왕궁에 침범하기로 결정하고, 세자가 거주하는 별채를 날릴 수 있는 많은 양의 화약을 넣으려고 하였답니다. 그들은 이 사건에 의해 발생할 혼란을 이용하여, 군주를 붙잡아서 왕권이 박탈되었음을 선언하려고 하였습니다. 폭풍을 동반한 폭우가 마침 와서, 그 계획의 실시를 연기하였고, 12월 7일에 실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내시가 저지른 행동 때문에 음모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의 공범자들을 자백할 때까지 고문을 당하였고, 그들은 즉시 수배되어 체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선 관리들은 이 사건에 대해 최대한 비밀을 지키고 있어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 사건의 원인과 실시의 시작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왕실 규방의 몇몇 호위병들을 제외하고, 관리들이나 서울의 거주자들은 수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상도와 충청도에서 동학(東洋 敎理)이라는 이름으로 지칭되는 비밀 결사의 구성원들 중에서, 집권하는 왕조를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 유파에 가입하지 않은 조선인들은 그 목적이나 규정을 알지 못합니다. 이 교리의 신봉자들은 초자연적인 특권을 누린다고 - 이 말은 여기서 신임을 얻습니다 - 주장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을 묶고 있는 끈을 끊을 수 있고, 뚜렷한 고통없이 가장 심한 체형을 견디고, 그들을 때린다 해도 그들의 상처에서 피가 흐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씨가 당한 체형을 견디는 방법은 그 이야기를 증명하지는 못하였습니다.⁴⁶⁾

이에 따르면 이씨 성을 가진 내시가 동학 조직의 지령을 받고 고종을 암살하고 정부를 전복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이 어떤 연대기 자료나 형사 사건 기록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뢰할 수 없

46)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3 조선II·1889』 [75] 반역음모와 이로 인한 왕실의 충격에 대한 보고(1889.12.15.).

는 첩보 수준의 내용에 지나지 않았다. 다만 프랑스 공사관측에서는 동학을 매우 위험한 조직으로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음은 분명하다. 나아가 동학 조직을 초자연적인 특권을 믿는 신비한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어서 천주교측도 동학에 대한 정보를 파리외방전교회 본부에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⁴⁷⁾

1891년 말경에는 우리 교우들이 꽤 불안을 겪었습니다. 여러 도의 여러 郡에서 발표한 문서가 동시에 나타났는데, 그 문서에는 이장들에게 소위 邪敎를 따르는 자들을 조사해서 고을 원에게 고발하라는 명령이 들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같은 동네의 집들은 서로 연대책임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의정부에서 나온 이 명령은 道 감사에 의해 郡에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은 박해 중의 가장 좋지 못했던 시절의 행동 방식과 무기를 다시 쓰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사교라는 단어가 모호했고, 또 비록 예전에는 이 말이 항상 천주교를 가리키는데 쓰이었지만, 이번에는 그것이 우리 교우들에게 원한을 품고 하는 일인지 당연히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⁴⁸⁾

여기서 나오는 여러 도의 여러 고을에서 발표한 문서는 1891년 10월(음력) 조병식이 충청도 관찰사로 부임한 이래 발표한 동학 금압령을 비롯한 여러 금압 조치를 가리킨다. 그런데 이러한 사교 금압령이 천주교 신자들에게 불뚱이 될 것이라 우려했던 것이다. 당시 천주교가 동학에 관심을 기울인 까닭은 동학이 천주교에 반대하는 종교라는 점도 있거니와 무엇보다 동학 금압이 사교 금압과 연결되어 천주교 선교에도 영향을 줄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47) 뮈텔의 파리 본부 보고서는 당시 전국 각지에 파견되어 내려간 여러 신부들의 보고서에 입각하여 작성되었다. 당시 뮈텔에게 보고된 문서 현황에 관해서는 이원순, 1969, 「미공개자료 Mutel 문서」, 『한국사연구』 3; 조광, 1985, 「동학농민혁명 관계자료 拾遺-Mutel의 자료를 중심으로」, 『사총』 29 참조.

48) 한국교회사연구소 편집부, 앞의 글, 1892년 보고서, 266쪽.

이어서 이 보고서는 동학의 발생과 교리, 주장, 분포 범위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몇 해 전부터 이상한 교리와 행동을 가진 이교적인 교파가 東學이라는 이름으로 이 나라에 세워졌습니다. 그 교파의 추종자들은, 특히 전라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문서가 특히 발표된 것이 바로 전라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학군들을 탄압하려고 그러는 것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주교인들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기회에 우리 신임 교우 여럿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경상도 고을의 한 外敎人이 고을에서 나온 공식문서를 보고 아마 그것이 그리 분명치 못하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문서를 하나 지었는데 거기에는 상부관청에서 받은 명령을 상기시키고나서 동향인들에게 두려움도 조심성도 가지지 말고 천주교인들과 또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을 기소하라고 종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언문으로 작성된 이 문서에는 관인이 찍혀 있는데 그것이 원의 관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조조(Jozeau) 신부가 다행히도 그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그 뒤 신부가 찾아가 항의하자 관장은 도장이 가짜라고 어렵지 않게 언명했습니다. 그러나 위조한 자를 처벌하기를 요구하자 관장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공모했었다는 증거 일까요? 어쨌든 프랑스 공사가 우리를 후원해 주었고, 죄인은 가벼운 귀양살이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그 근방의 외교인들에게서 다시 모험을 시도할 생각을 송두리채 뽑아 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어쨌든 의정부의 의도로는 이 박해의 조치가 우리를 겨냥한 것인지 무슨 동기로 그 조치가 취해졌는지를 우리는 결코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⁴⁹⁾

천주교측은 정부의 동학 탄압으로 인해 자신들도 피해를 받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자신들은 프랑스 공사관의 지원으로 천주교 신자들이 탄압을 겨우 면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49) 한국교회사연구소 편집부, 앞의 글, 1892년 보고서, 266쪽.

관원들이 동학 탄압과 연계하여 천주교 신자를 탄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이러한 탄압의 배후에는 중앙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거나 의심하고 있다. 그렇다고 동학을 자신들의 처지와 같다고 판단하여 그들과 연대할 생각은 조금도 있지 않았다. 그들은 동학을 “이상한 교리와 행동을 가진 이교적인 교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프랑스 공사관은 이에 앞서 동학보다는 鄭鑑錄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 그것은 정감록에 조선왕조가 1892년에 멸망한다고 예언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플랑시가 1889년 2월 본국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 가운데 정감록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파티(광서제 결혼 축하를 빙자한 원세개에 의한 정변, 필자 주)가 무사히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걱정은 여전했습니다. 위험이 생길 경우에 대비하여 많은 유복한 가족들은 피난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요는 특히 모든 사회계층에서 말하기 좋아하는 어떤 예언에 의해 지속되었습니다. 14세기에 살았던 정감이라는 작가가 쓴 책[鄭鑑錄] 한 권은, 조선인들이 말하기를 한결같이 실현되었다는 반도의 운명에 대한 예측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너무나 정확하였기 때문에 해석을 금지시키기 위하여, 섭정공(대원군, 필자 주)이 - 약 20여 년 전에 - 이 책을 베끼는 것과 재판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금지된 책들은 그 사본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조차 가장 중한 벌에 처해졌고, 신고된 모든 책은 압수시켰습니다. 그리고 새 판을 발간하였는데 그 문장들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그 의미를 알아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몇몇의 사본이 금지를 피하였고, 이것이 새롭게 널리 퍼졌고, 오늘날 그 옛날의 원문에서 점술 애호가들이 미래를 탐색합니다. 그들이 알아내기로는 현재 정권을 쥔(1392년에 출현한) 이씨 왕조는 500년만 지속될 것인데, 1892년까지랍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3년 전(1889)에, 한 청국인 장군이 조선에 군대를 끌고 들어와 진인[眞人]이라는 이름의 그 동포 중에 한명을 왕으로 세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침공에 뒤따르는 학살 장면들, 濟州道로의 왕실 가족 추방, 이 모든 일들은 이 아시아의 노스트라다무스[Nostradamus]의 예언 따위 속

에 나타나는 것이며, 이 신비한 책은 이곳 사람들이 순진하며 무식하며 미신적이기에 이곳에서 더욱 신뢰받게 됩니다.⁵⁰⁾

이에 따르면 프랑스 공사관측은 정감록이 조선인들 사이에서 광범하게 유포된 가운데 청국침공설과 결합되어 증폭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른바 1892년 조선멸망설이다. 비록 『정감록』을 14세기에 정감이 지었다는 오류가 보이지만 圖讖書로서 진인이 나라를 세운다는 예언을 인지하고 있었다. 심지어 이 책을 프랑스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에 견줄 정도였다.

프랑스 외교관의 이러한 관심은 뫼텔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⁵¹⁾ 그는 전라도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었던 조조 신부를 통해 동학 관련 정보를 입수하였다. 그리하여 1892년 8월에 동학도들이 비결을 확보하기 위해 전라도 고창 선운사 도솔암을 습격하여 마애불을 조사한 일을 실제로 일어난 사건으로 인식하였다.⁵²⁾ 나아가 그는 이 사건을 왕조의 전복과 새로운 국가의 설립 시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서명도 「東學徒開國陰謀件」이다.⁵³⁾ 특히 뫼텔이 주목했던 점은 군대 동원과 함께 “서양인과 서양종교를 물리치자(斥滅洋人洋教)”는 구호였다. 뫼텔로서는 가장 우려할 만한 사안이었다. 또한 “남조선 정씨가 늘 천명이 우리도[동학]에 부여되었다”고 말했다는 점이다. 동학과 정감록과 연결되는

50)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3 조선Ⅱ·1889』【20】 광서 황제 결혼을 계기로 원세개가 개최한 파티 및 정감록에 관한 보고(1889.2.28.).

51) 박맹수, 2011, 『개벽의 꿈, 동아시아를 꿈꾸다』, 모시는 사람들, 303쪽; 이영호, 2016, 「선운사 석불비결사건과 정감록」, 『동학학보』 40; 한승훈, 2021, 「선운사 석불비결사건에 대한 종교사적 검토」, 『전북학연구』 3.

52) 『동학사』를 집필한 오지영은 자신이 마애불 비결 탈취 사건에 관여했음을 밝히고 있다. 오지영, 1940, 『동학사』, 영창서관, 87~92쪽 참조.

53) 「東學徒開國陰謀件」은 한국교회사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는 『뫼텔문서』에 들어 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발간하고 이는 『동학농민혁명사료총서 5, 동학문서』에 수록되어 있다. 그 밖의 개별 문서들도 『동학문서』에서 찾을 수 있다.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⁵⁴⁾ 즉 서양인 배척이 조선멸망설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동학은 프랑스 외교관이나 선교사들에게 일종의 정감록으로 비쳤다. 그렇다면 천주교측도 동학도의 움직임을 서양 배척과 연계하여 예의주시할 수 밖에 없었다. 동학도의 이러한 시도는 천주교 선교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물론 프랑스 외교관과 천주교측은 1892년 조선멸망설을 불신하였다. 1891년 11월 프랑스 공사관은 이 시기 조선 정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미국 공사와 러시아 공사를 위시한 본인의 동료들 가운데 몇몇의 견해는 상황을 매우 비관적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적어도 내년 봄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선에는 불만 세력의 수가 많고 백성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반란이 항상 봄에 발생하는데 이는 겨울이 길고 혹독하여 땅이 3개월 이상 얼어 있어서 일자리가 모자라고 창고가 바닥나 봄이 되면 백성들의 대부분이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되고 부랑자가 늘어나며 거리는 위험해지기 때문에 사소한 이유로도 소란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뮌헨 각하가 선교사를 통해 내륙지방에서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지방에서 판치는 수많은 도적 떼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평온한 상태라고 합니다. 끝으로 본인은 소문들이 떠돌고 사람들이 불만을 크게 외치고 일부 걱정 많고 비관적인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긴장된 상황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봄까지 혹시 대규모 소요가 발생한다면 반드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구. E. 로세 파리의 외무부 장관 리보 각하께, 등등⁵⁵⁾

54) 정감록으로 대표되는 조선후기 민중신앙과 이단 사상에 관해서는 조광, 1994, 「조선 후기 민중사상과 동학농민전쟁」, 『백제문화』 23, 백제문화연구소; 장영민, 1998, 『동학사상과 민중신앙』, 『동학연구』 2; 배향섭, 앞의 책, 55~60쪽 참조.

55)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5 조선Ⅳ·1891~92』 【55】 조선의 물가 급

이에 따르면 프랑스 공사관과 뮌헨은 당장 혁명이 일어날 상황은 아니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든지 대소요가 일어날 상황임은 부인하고 있지 못하였다.

나아가 조선정부의 동학 탄압과 함께 지방관 및 향촌사회의 천주교 배척도 자주 언급하였다. 물론 그때그때마다 프랑스 공사관의 개입과 천주교측의 노력으로 천주교 신자들의 피해를 보상받곤 하였다.⁵⁶⁾ 그러나 동학도들의 활동은 매우 우려할 만한 현상으로 파악했다. 특히 1892년 3월 9일(음력 2월 11일) 광화문 伏閣上疏가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 1893년 10월 뮌헨은 파리 본부에 동학의 연원과 성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東學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에서 생겨나서 그 전파로 정부를 불안케 하는 것 같은 이상한 교파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말했습니다. 올해도 과연 서울과 8도가 이 空論家들의 음모로 불안에 싸였었는데, 이들은 무엇보다도 大衆의 叛徒들입니다. 오래 전부터 전국에 돌아 다니는 소위 예언이라는 것들이 현 王朝가 500년이라는 숙명적인 날짜를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날짜가 1892년으로 기한이 끝났던 것입니다. 이 시기에 예언의 실현을 재촉하기 위해 운명의 수레바퀴를 기꺼이 도와줄,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불만을 다시 일으키는 불평분자들과 새 왕조의 출현을 예측해서 미리 기대를 하는 관직없는 양반들과 끝으로 혼란을 틈타 쉽게 이득을 취하려는 할 일 없는 사람들(이런 사람의 수가 조선에는 너무나 많습니다)은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두 요술에 걸린 것처럼 모였고, 또 여기서는 반란자가 되거나 그런 사람으로 간주되는 것이 위험하므로 자기들의 정체를 더 쉽게 감추기 위

등과 정치 상황(1891.11.20.)

56)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5 조선Ⅳ·1891~92』 【64】 전라도에서 피해 입은 가톨릭 신자 문제 해결(1892.2.20.).

해 어떤 敎義的 간판을 내걸었습니다.⁵⁷⁾

이에 따르면 천주교측은 동학을 정감록과 결부지어 파악하고 있으며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조직된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양반 가운데 불평분자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정감록이라는 도참서를 이용하는 종교집단이 동학인 것이다. 동학을 정감록의 연장선으로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막상 위텔이 『동경대전』을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정감록 사상으로 볼 수 없는 측면도 있음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이 교파의 敎義에 대한 개념을 믿기는 꽤 어려운 일이며, 이 교파에서 발행한 책을 내가 장만할 수 있었으나 아주 모호합니다. 이 교파의 두목 중 한 사람은 예전에 천주교인들과 관계를 맺었던 모양입니다. 그 책들 중 하나에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1861년에 천주교를 믿어야 할지 어떨지 몰라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신령이 그에게 나타나서 진리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의 소원을 칭찬하면서 서양에서 온 사람들이 가르치는 대로의 천주교는 취하지 말고 자기가 진리를 직접 가르쳐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아서 전파할 책임을 진 교리는 ‘동학’이라고 부르라고 했다 합니다. 거기에 환상가의 공상 아닌 다른 것이 들어 있다 해도, 이 예언자에게 말한 천사가 빛의 천사가 아님은 아주 명백합니다. 천주라는 이름과 천주교에서 빌어간 몇 가지 단편적인 진리에, 대개는 易經에서 끌어온,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사상과 이 책에 대한 제멋대로의 해석들이 섞여 있습니다. 마술의 축문과 몇 가지 짧은 기도문도 들어 있습니다. 하기는 동학을 따르는 사람 대부분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교리를 절대로 모르고, 다만 그 이름만이 그들의 가담의 표가 됩니다.⁵⁸⁾

57) 한국교회사연구소 편집부, 앞의 글, 277~279쪽.

58) 한국교회사연구소 편집부, 앞의 글, 277~279쪽.

뫼텔은 『동경대전』을 분석한 결과 교의가 모호하다고 판단하면서 최제우가 천주교에 영향을 받았다고 언급하고 있다.⁵⁹⁾ 그러면서도 뫼텔은 최제우의 득도 시기를 1861년으로 잘못 파악했지만 동학이 서학의 대척점에 서서 창시되었음을 인지하고 있다. 특히 동학이 지칭하는 천주가 천주교의 ‘天主’에서 온 게 아니라 유교 경전인 『易經』에 근원을 두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동학교도들은 동학의 교리를 모른 채 동학 그 자체 이름을 듣고 따르고 있음을 덧붙이고 있다. 뫼텔 역시 동학이 천주교에 반대하여 일어났으며 동학도 역시 천주교에 반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뫼텔은 1893년 3월 24일(음력 2월 7일) 일기에서 동학도가 상경한다는 소식을 적으면서 이들이 외국인들을 축출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을 덧붙였다.⁶⁰⁾

그러나 1893년 보고에서는 동학도의 이러한 활동이 정부의 거부로 효과를 보지 못했음을 전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892년 12월에 그들 수천 명이 남쪽 도에 모였습니다. 그들의 공공연한 계획은 대거 서울로 올라와서 모든 외국인을 쫓아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모자들은 확실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겨울 내내 그들의 집합에 대한 소문뿐이었습니다. 단호한 수단을 쓴 다음에는 일을 하지 않고 살 수 있으리라고 믿고 직업과 밭일을 버린 어중이떠중이가 많습니다. 시골에서는 공포가 심했고 특히 우리 교우들 사이에 그러했습니다. 끊임없이 파발꾼들이 내게 와서 조심하라고 말하고, 이번에는 우리의 파멸이 틀림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선사람들의 과장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⁶¹⁾

59) 뫼텔의 정보 입수는 전라도 김제에서 선교하던 조조(Jozeau) 신부와 전라도 고산의 비에모(Villemot, Marie Pierre Paul, 1869~1950) 신부의 노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이에 관해서는 이원순, 조광, 앞의 논문 참조.

60) 『뫼텔주교일기』 I, 1893년 3월 24일.

61) 한국교회사연구소 편집부, 앞의 글, 277~279쪽.

이에 따르면 뮌텔이 1892년 12월(양력) 전주 삼례역에 모인 동학도의 교조신원운동을 언급하고 있다. 이어서 동학 주모자들은 정부 전복을 통한 권력 장악이 목표였고 추종자들은 일을 하지 않고 놀려는 ‘어중이떠중이’에 지나지 않은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천주교 축출 선언을 호언장담으로 여겼다.⁶²⁾ 따라서 뮌텔은 그들이 장담한 1893년 3월 정부 전복 시도 즉 광화문 복합상소는 한낱 허세에 불과했다고 판단하고 있다.⁶³⁾

그러나 멀리서는 모든 것을 兵火의 유혈의 도가니로 만들겠다고 위협하던 동학군들이 서울에 도착하면서는 진정되었습니다. 그들은 나라에서 외국인들을 내쫓아줍시다 하는 상소를 임금님께 올리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들이 대궐 앞에 먼지에 이마를 박고 엎디어 있는 것을 여러 날 동안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 임금님이 그들에게 물러가라고 이르게 했습니다. 그들이 순순히 말을 듣지 않으므로 주모자들을 찾으려 관헌이 출동했고, 얼마 안 있어 서울에서는 동학군들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떼를 지어 충청도와 경상도의 경계에 있는 俗離山이라는 높은 산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들을 산에서 몰아내려고 서울에서 군사들을 보냈으나, 군대가 도착하기 전에 모두 자취를 감추었습니다.⁶⁴⁾

복합상소 기간에 벌어진 상황을 전하면서 척왜양을 요구한 복합상소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이어서 고종의 윤음이 내려졌고 동학도들은 충청도 보은으로 옮겨가 집회를 이어갔음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동학

62) 당시 삼례 집회에서 동학농민들은 동학과 서학의 관계를 ‘氷炭의 관계’로 규정하였다. 삼례 집회와 관련하여 박맹수, 2007, 「敎祖伸冤運動期 參禮集會에 대한 再檢討」,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8, 11~12쪽. 이경원, 2013, 「삼례취회시기 전라도 동학교도의 봉기계획 구상과 신원운동의 변화」, 『1893년, 동학농민혁명 전야를 밝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72~73쪽 참조.

63) 한국교회사연구소 편집부, 앞의 글, 277~279쪽.

64) 한국교회사연구소 편집부, 앞의 글, 277~279쪽.

도들의 이러한 책왜양 움직임으로 천주교 세례자가 예전에 비해 감소했음을 뒷받쳤다.⁶⁵⁾

반면에 프랑스 공사관은 천주교측과 달리 동학의 교리와 움직임에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프랑스 공사관이 1893년 3월에 본국에 보낸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장관님, 몇 달 전부터 서울에서는 동학(동쪽의 종교?)[東學]교도들에 대한 얘기밖에 없습니다. 1만, 2만, 3만 명이나 되는 교도들이 서울로 몰려와 외국인들을 몰아내고, 기독교도들을 학살하고, 선한 정치로 나라를 쇄신하려 한답니다. 이들은 우선 3월 8일을 택하여 궁궐 문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3월 8일이 다 지나도록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이교는 분명 존재합니다. 동학교도 대다수는 정부가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선비들입니다. 최제우[崔濟愚]란 선비가 동학(Tong-Hak)을 창시하였습니다. 그는 30년 전 백성들에게 새로운 종교를 창시해주는 영광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동학교도들 스스로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늘을 공경하고, 마음을 굳게 하며, 나라를 지키고 백성의 안위를 보장한다. 사흘 전 동학교도 21명이 궁궐 문 앞에 모여 엎드려 절하고 상소를 올렸으나 국왕은 상소 접수를 거부하였습니다. 교도들은 전 교주의 사후 복권 및 정부가 동학을 인정해 줄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회 전하가 들어줄 수 없는 사안들이었습니다. 교도들은 오늘 개신교 선교사들의 집 담에 격문을 부쳤습니다. 경구 . H. 프랑델 파리의 외무부 장관 리보 각하께, 등등⁶⁶⁾

이에 따르면 동학도의 복합상소가 폭력적인 소요로 발전하지 않았지만 동학의 영향력을 낮게 평가하지 않았다. 특히 정감록에 연결시키기 보다는 교리 자체에 중점을 두고 이해하고자 하고 있다. 즉 동학의 핵심

65) 한국교회사연구소 편집부, 앞의 글, 277~279쪽.

66)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6 조선VI:1893~1894』 【16】 동학 교도들의 광화문 복합 상소(1893.3.31.).

교리인 敬天, 修心正氣, 輔國安民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복합상소의 목표가 敎祖伸冤에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서두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이들 동학도의 활동이 외국인 축출, 기독교도 학살, 정치 권력 장악 기도로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깔려 있다.

이어서 1893년 4월 25일(음력 3월 10일) 프랑스공사관은 본국에 이러한 사태를 보고하면서 동학도들이 살포한 격문을 입수하여 내용을 분석하고 있었다.⁶⁷⁾ 이에 따르면 복합상소가 반종교적 성격을 지니지 않고 있다고 파악하면서 천주교 선교사보다는 대일 곡물 수출과 관련하여 일본에 대한 반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당시 대일 곡물 수출이 조선인 농민들에게 미친 영향이 복합상소에 반영되었다고 판단한 셈이다. 그리하여 동학도들은 일본 영사관에 榜文을 붙였고 일본 거류민이 동요하고 있음을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 공사관이 우려했던 反天主教 저항이라 할 교안으로 확산되지 않으리라 예상했다. 그러나 자신들의 보고서에 첨부된 자료에 따르면 방문 부착자들이 천주교 지도자들을 향해 신부들의 선교 행위를 조불수호 통상조약에 위반한 행위로 규정하고 이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일반 유생들과 마찬가지로 不孝와 서양의 혼인 풍속 등을 비판한 뒤 천주교의 조선 철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었다.⁶⁸⁾ 이어서 뮌헨은 고종이 청국에 원병을 요청했으나 청국이 거절했다는 소문을 일기에 적었다.⁶⁹⁾ 훗날 밝혀진 바에 따르면 조정 내부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원병 요청을 철회하였다. 그러나 대일 곡물 수출로 야기된 쌀값 폭등으로 지방에서 피란한다는 소문이 서울에도 들려왔다.⁷⁰⁾ 이에 프랑스 공사관

67)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6 조선VI·1893~1894』 【19】 동학교도들의 패서와 일본 영사관측의 반응(1893.4.25.).

68)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6 조선VI·1893~1894』 【19】 동학교도들의 패서와 일본 영사관측의 반응(1893.4.25.).

69) 『뮌헨주교일기』 I, 1893년 5월 6일.

70) 『뮌헨주교일기』 I, 1893년 5월 13일; 5월 14일.

은 “조선은 피를 부르는 혁명 전야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다고 판단하였다.⁷¹⁾ 당시 고종이 이런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속사기관총, 속사 소총을 궁궐에 들여왔으며 외국인을 용병으로 고용했다는 사실에서 위기 상황을 짐작하고 있었다. 심지어 뫼텔은 보은 집회에 맞서 청국의 전차에 대포와 군수품을 싣고 온다는 소문도 일기에 적었다.⁷²⁾

II. 외교관 선교사의 동학농민혁명·청일전쟁 대응과 조치

1.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정보 입수

1894년 정초는 프랑스 공사관이나 뫼텔에게는 결코 잇을 수 없는 한 해였다. 그는 1894년 5월 6일 일기(음력 4월 2일)에서 다음과 같이 동학농민군의 동향을 적고 있다.

또 다시 東學徒가 말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에 전라도 감사가 전보를 보내왔다. 수많은 동학도가 집결하여 벽보를 붙이고, 양반과 부자들을 습격하고 있는데, 감사의 휘하에 있는 병사들로는 그들에게 저항할 수가 없으니 서울에서 병사들을 보내 달라는 내용이었다. 따라서 수백명의 병사들이 배편으로 전라도 감사에게 파견되었다. 동학도들은 특히 泰仁에서 많이 숙영하고 있다고 한다. 마침내 사람들은 그들을 반역자로 간주하기 시작했다.⁷³⁾

71)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6 조선VI·1893~1894』 【26】 조선 국왕 및 궁궐의 상황에 대한 보고(1893.5.22.).

72) 『뫼텔주교일기』 I, 1893년 5월 14일.

73) 『뫼텔주교일기』 I, 1894년 5월 6일.

이에 따르면 천주교측은 고부 봉기 소식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가 5월에 들어와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전해 들은 것이다. 이어서 조선정부로부터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를 서울로 철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⁷⁴⁾ 그러나 프랑스 공사관은 급할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동학도가 선교사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반면에 뮌헨은 동학농민군의 동향과 조선 정부의 대응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뮌헨의 1894년 5월 9일 일기는 이를 잘 보여준다.

동학도에 대항하기 위해 서울에서 파견되는 병사 800명이 어젠가 그저께에 漢陽號, 蒼龍號 등 2척의 증기선에 나눠 타고 군창(Koun-tchang 군산창, 필자 주)을 향해 제물포를 출발했다. 역시 병사들을 태운 청국 군함 한 척이 두 증기선과 함께 떠났다. 소문에 의하면 충청도에서도 1,200명의 병사가 파견되었다고 한다.⁷⁵⁾

또한 프랑스 공사관도 동학농민혁명에 따른 자국 선교사의 안전 문제에 촉각을 세웠다. 조선정부의 외국인 철수 요청도 있거니와 프랑스 공사관도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뮌헨에게 선교사 철수를 요청했다.⁷⁶⁾ 그러나 뮌헨은 공사관의 상황 판단에 동의하면서도 신부들의 철수 과정에서 일어날 문제를 우려하여 현 거주지가 안전하다고 반박하였다. 프랑스 공사관은 나중에 조선 정부에 항의할 근거가 없어짐을 강조하였지만 결국 현지 사정에 밝은 뮌헨의 판단에 따랐다.

그러나 뮌헨 역시 그의 촉각은 전라도 일대에 가 있었다. 5월 19일 일기에는 동학도들이 소금에 대한 세금의 폐지와 장시세 폐지를 요구했다는 내용을 적었다.⁷⁷⁾ 그리고 이때서야 동학도의 첫 봉기 지역이 고부

74) 『뮌헨주교일기』 I, 1894년 5월 7일.

75) 『뮌헨주교일기』 I, 1894년 5월 9일.

76)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6 조선VI·1893~1894』 【65】 삼남 지방 등의 소요로 인한 선교사들의 안전 문제(1894.5.15.).

임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뮌텔은 6월 3일(음력 4월 30일) 일기에 동학도 즉 ‘暴徒’, ‘叛徒’들이 전라감영 소재지 전주로 들어갔으며 전화선을 끊어버리고 전신주를 파괴했으며 전화기까지 철거했다는 소문을 적었다.⁷⁷⁾ 심지어 파괴된 전임감사가 서울 감옥에 구금되었다는 풍문을 적었다. 뮌텔로서는 신부의 안전에 촉각을 세우면서 전라도 수령들의 탈출 사태를 적었다. 다만 천주교 신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반면에 뮌텔은 6월 4일(음력 5월 1일) 일기에서 고종이 전라도 동학난에 노심초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생들과 춤, 노래로 매일 보내고 있다는 소문을 적었다.

그러나 그의 우려대로 전라도 고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빌모 신부의 소식을 들었고 5월 31일(음력 4월 27일) 전주가 점령당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⁷⁸⁾ 그것은 조조 신부를 비롯하여 천주교 신자들의 안전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조조 신부는 아직은 안전하다고 파악했다. 이에 뮌텔은 이 소식을 듣고 제물포에 머물고 있는 프랑스 해군 함장에게 소식을 전했다.

그러면 뮌텔은 동학농민혁명의 원인이 어디서 찾았을까? 그의 일기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후일 파리 본부에 보내는 1894년 보고서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우리에게 이 무서운 시련을 가져다 준 사실들을 몇 마디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5월에 전라도의 여섯 고을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관리들의 착취에 진저리가 난 백성들이 동학도의 충동에 귀를 기울여 일제히 반란

77) 『뮌텔주교일기』 I, 1894년 5월 19일.

78) 『뮌텔주교일기』 I, 1894년 6월 3일.

79) 『뮌텔주교일기』 I, 1894년 6월 6일.

을 일으킨 것입니다. 반도들을 진압하라고 서울에서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반도들은 5월 31일 전주시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곳에 주거를 정하고 있는 보두네(Baudounet) 신부는 늦지 않게 피했습니다. 그러나 사제관은 부분적으로 약탈을 당했고 거기 있던 신학생 중의 한 사람은 동학군이 쏜 총탄으로 턱에 상처를 입었습니다.⁸⁰⁾

그는 동학농민혁명의 원인을 관리들의 가혹한 수탈에서 찾고 있다. 또한 6개 고을에서 고립분산적으로 일어났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전의 농민봉기에서 드러나는 고립분산적이고 자연발생적인 성격의 민란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동학 지도자의 주도 아래 농민이 참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비록 신학생 한 명이 부상을 당했지만 큰 피해가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프랑스 공사관 역시 뮌헨의 정보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천주교 측의 견해와 유사했다. 1894년 5월 25일 프랑스 공사관이 본국 외무부에 보낸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현재로서는 한반도 남부 지방에서 발생한 소요의 성격에 대해 명확한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프랑스 선교사들이 전해 온 신뢰할 만한 정보에 의하면 이번 소요가 외국인들이나 천주교도들을 향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요를 일으킨 자들은 합의에 의해 혹은 강제로 이회 전하로부터 일부 조세의 감면과 부패한 관리들을 소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⁸¹⁾

이러한 보고에서 유의할 점은 동학도들이 외국인과 천주교를 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외국인에는 일본인은 제외되어 있다. 백산 집

80) 한국교회사연구소 편집부, 앞의 글, 310쪽.

81)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6 조선VI·1893~1894』【67】 남부 지방 소요의 발생 원인과 경과(1894.5.25.).

회에서 제시한 4대 강령 가운데 세 번째 “일본 오랑캐[倭夷]를 쫓아내고 성도를 맑게 한다(逐滅倭夷 澄清聖道)”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서양인과 천주교 신자는 제외되어 있다.⁸²⁾ 이후 동학농민혁명 전개 과정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남부 지방에 불만을 가진 자들의 무리가 처음으로 출몰한 것은 3월로 주로 전라도지방을 중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무리는 처음에는 비교적 조용했으나 4월 말경부터 상황이 갑자기 반전되면서 반란군들은 정부의 무기고를 약탈하고 관리들 몇 명을 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서울과 강화도에 주둔하는 군인 1,200명에서 1,500명을 파견했지만 아직까지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많은 군인이 오히려 폭도들에게 가담했으며 나머지는 여러 차례 패배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2만 명에 달하는 폭도들은 전라도의 도움을 점령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합니다.

남부에서 발발한 소요가 현재까지는 서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어 이곳은 매우 평온합니다. 프랑스 전함이 현재 제물포에 정박 중이며 만일의 경우 프랑스 공관을 보호하기 위해 해군 부대를 서울에 파견할 것입니다.⁸³⁾

프랑스 공사관 역시 뮌헨의 인식과 마찬가지로 관리들의 불법 수탈에서 혁명의 원인을 찾고 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제1차 기포 역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경군의 파견 사실과 농민군의 전주성 함락 직전이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물론 프랑스 공사관 역시 프랑스 군함이 제물포에 정박 중이며 해군을 공관 보호를 위해 파견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프랑스 군함은 외국 군함과 마찬가지로 동학농민군의 소요와

82) 鄭喬, 『大韓季年史』 2, 甲午條.

83)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6 조선VI·1893~1894』 【67】 남부 지방 소요의 발생 원인과 경과(1894.5.25.).

관련하여 5월 9일 입항한 이래 조선정세의 추이를 주시하며 계속하여 정박하고 있었던 것이다. 뮌헨 역시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6월 7일 일기에 미국 순양함, 청국 장갑함, 일본 군함이 정박하고 있으며 곧 러시아와 영국의 장갑함도 곧 도착할 것임을 적고 있다.⁸⁴⁾

이러한 정보 보고가 뮌헨과 공유되고 있다는 점에서 뮌헨 역시 농민혁명의 전개 과정을 파악하고 있었으리라 본다. 훗날 뮌헨은 파리 본부에 보고하는 문서에서 조선 정부가 동학농민혁명을 일반적인 반란 이상으로 판단하여 청국에 원군을 요청했고 청군이 아산만에 상륙했음을 덧붙였다.⁸⁵⁾ 또한 청국의 원군은 자신의 종주권과 영향력을 확고히 하는데 목표를 두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프랑스 공사관은 조선 정부의 이런 원군 요청이 농민군 진압에 유효할지 몰라도 일본을 자극하여 조선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⁸⁶⁾

2. 프랑스 외교관·선교사의 동학농민혁명 대응

복합상소 이후 동학농민군 세력이 斥倭를 표방하자 신속히 군함을 파견하였던 열강은 1894년 5월 21일(음력 4월 27일) 농민군의 전주점령과 조선정부의 청국군 파병 요청이라는 새로운 사태를 맞이하여 본격적으로 조선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프랑스 공사관은 농민군이 삼남 지방을 비롯하여 강원도를 장악하였고 서울에서 100킬로미터까지 진출했다고 인식하였다.⁸⁷⁾ 본국 외무부에서 사태의 전개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었고 프랑스 공사관 역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시

84) 『뮌헨주교일기』 I, 1894년 6월 7일.

85) 한국교회사연구소 편집부, 앞의 글.

86)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6 조선VI·1893~1894』 【69】 남부 지방 소요 진압을 위한 청국군 지원 요청(1894.6.6.).

87)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6 조선VI·1893~1894』 【69】 남부 지방 소요 진압을 위한 청국군 지원 요청(1894.6.6.).

작했다.⁸⁸⁾ 조치의 중점은 프랑스 선교사의 안전에 모아졌다.

그러나 프랑스 공사관과 뮌텔에게 전달되는 소식은 불길한 조짐을 보여주었다. 우선 전주에서 선교하고 있는 보두네 신부집이 도난을 당했으며 동학도들이 부자들을 노략질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⁸⁹⁾ 동학도의 이러한 행동이 프랑스 선교사들에게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냈다. 6월 31일(음력 5월 8일) 전주성을 빠져나간 농민군의 행동을 지목한 것이다. 뮌텔은 7월 6일 일기에서 다음과 같이 동학도에 대한 경계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저녁 때 전주에서 전보가 도착. “신자들에게 위협에 임박해 있음. 조조. 보두네”(CHRISTIANI IN PERICULO IMMINENT. JOZEAU.BAUDOUNET). 어디서 위협이 오는 것일까? 분명히 수고스럽게 전주를 빠져나가지 않고 노략질을 시작한 동학의 무리들로부터 오는 것일 게다.⁹⁰⁾

심지어 7월 10일 일기에서는 전라도 지역 거주 신부들의 편지에 입각하여 천주교 신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무리들은 “바로 동학도”라고 단정하였다.⁹¹⁾ 그 이유로 천주교 신자들이 양심을 내세워 동학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들었다.⁹²⁾

드디어 프랑스 공사관 및 천주교측의 바램과 달리 신부가 피살되었다. 신부의 이름은 조조였다. 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라도 지역 농민군의 동향을 뮌텔에게 가장 먼저 보고한 신부가 청군에 의해 공주 부근에서 피살되었던 것이다.⁹³⁾ 천주교 신자가 보낸 소식에 따르

88)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6 조선Ⅵ·1893~1894』 【70】 소요로 인해 프랑스 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 문의(1894.6.8.).

89) 『뮌텔주교일기』 I, 1894년 7월 2일.

90) 『뮌텔주교일기』 I, 1894년 7월 6일.

91) 『뮌텔주교일기』 I, 1894년 7월 10일.

92) 한국교회사연구소 편집부, 앞의 글, 312쪽.

면 조조 신부가 전라도 현지 사정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7월 24일 서울로 오는 길목인 공주에서 8월 2일 하인과 함께 청군에게 참수당한 것이다. 이들 청군은 일본군과 성환 전투에서 패한 뒤 도망가던 중 우연히 조조 신부를 만나 심문한 끝에 살해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성환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청군으로 파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프랑스 공사관측에서는 신부가 청군 상급 지휘를 받아 살해당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뫼텔 역시 사건을 조사하고 공사관에 전달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조조 신부의 유해를 찾는 데 힘을 기울였다.⁹⁴⁾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조조 신부가 동학농민군에게 체포되었지만 곧 방면되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농민군이 서양인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동학의 대척점에 서 있던 천주교 신부에 대한 이러한 처리 방식은 이 시기 농민군의 지향이 삼례 취회·광화문 복합상소에서 표방했던 反外勢 反封建 구호와 달리 실제로는 反倭 反封建에 있음을 보여준다.⁹⁵⁾ 농민군 자신이 정작 프랑스 신부를 접하고서는 기존의 적대의식을 폭력으로 해소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 공사관의 판단은 조선 정부와 달랐다. 조선 정부가 6월 11일(음력 5월 8일) 전주화약 이후 청일 양군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조기에 군대를 상경시킴으로써 프랑스 선교사와 천주교 신자들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판단하였다.⁹⁶⁾ 심지어 농민군의 집강소 행정을 ‘완전한 무정부 상태’라고 규정하였다. 조조 신부의 죽음도 이런 무정부

93)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6 조선VI·1893~1894』 【87】 공주 인근에서 조조 신부가 청국군에게 피살(1894.8.16.).

94) 『뫼텔주교일기』 I, 1894년 8월 3일.

95) 배항섭은 동학농민군이 프랑스 신부와 천주교 신자들을 살해하지 않은 사실에 주목하여 동학농민군이 반일 반봉건에 주안을 두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배항섭, 2023, 「동학과 동학농민군의 대외인식」, 『한국사연구』 201, 한국사연구회, 235~238쪽 참조.

96)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6 조선VI·1893~1894』 【90】 전라도에서 위기에 처한 두 선교사(1894.8.30.).

상태에 불안을 느껴 상경하는 과정에서 청군에서 피살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농민군의 프랑스 선교사와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위협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동학 반도들은 활동 초기에 정부를 겨냥하고 자신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관리들을 공격했으나 6월 중순부터는 전국으로 확산되어 일반인들을 강탈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도들은 특히 천주교도들을 적으로 여기고 이들에게 분노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7월 초, 본인은 모두네 신부와 조조 신부로부터 염려스러운 내용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목숨을 건지기 위해 천주교도들이 무리를 지어 마을을 떠나 산으로 피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전라도 관찰사에게 필요한 보호를 요청했으나 관찰사는 서신을 받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바로 이때 전라도 관찰사의 재판 거부로 분노한 정부위원님께서 관찰사가 서신을 수령하고 선교사 및 천주교도들을 보호할 것을 전보 공문을 통해 지시하도록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독판에게 요청하신 것입니다. 관찰사의 행동에 대해 알게 된 왕도 똑같이 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찰사는 두 신부를 불러들여 요청 내용을 듣고 보호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나쁜 의도에서인지, 아니면 무능력해서인지, 여전히 제대로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중 조조 신부는 누구보다도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폭도들이 여러 번 그의 자택을 공격했습니다. 반도들이 그를 세 번이나 총으로 겨누었으나 매번 신부는 가슴을 들이밀며 쏘볼 테면 쏘보라고 했습니다. 신부의 이런 침착한 태도 덕분에 반도들은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급한 상황은 계속되었고 조조 신부도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7월 16일 신부가 유서 앞 구절에 이렇게 썼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는 혼란 속에서 몇 몇 야만인들의 타격에 쓰러질 날만 기다리고 있다. 천주교도들의 학살을 막으려면 아마도 나의 피가 필요한가 보다. 그렇다면 나는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심으로 내 피를 흘리리라.”⁹⁷⁾

97)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6 조선VI·1893~1894』 【96】 조조 신부 사망 관련 문서의 송부(1894.10.8.).

프랑스 공사관은 조조신부 피살의 책임을 청국은 물론 조선 정부에 묻기 위해 이런 보고서를 올린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농민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깔려 있었다. 이후 농민군에 대한 프랑스 공사관과 뮌텔의 부정적 인식은 대한제국기 의병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⁹⁸⁾

그런 점에서 천주교 신부들의 안전 문제는 조조 신부에 국한되지 않았다. 모두네 신부와 빌모(Villemot) 신부의 상황이 불리하자 프랑스 공사관에서는 금강 하구까지 ‘앵콩스탕’호를 급파했다. 그러나 신부 일행을 만나지 못해 제물포로 귀향한 가운데 전라관찰사의 도움으로 금강 하구까지 호위를 받아 도착했다.⁹⁹⁾ 이어서 ‘앵콩스탕’호가 금강 하구 마량에 도착하여 이들 신부를 탑승시켜 서울로 귀환시켰다.¹⁰⁰⁾ 이즈음 동학농민군도 더 이상 선교사들은 물론 천주교 신자들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뮌텔의 귀에 들려왔다.¹⁰¹⁾ 동학농민군으로서 는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소식을 듣고 천주교 문제보다는 공격 지점을 대일 투쟁으로 옮긴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이어서 프랑스 정부는 주재 공사관과 뮌텔 교주의 보고에 입각하여 조조 신부의 피살 원인과 책임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조선 정부에 압력을 가했고 청국 정부에 살해자 청군 처벌과 보상금을 요구했다.¹⁰²⁾ 또한 프랑스 공사관에서는 청군과 동학농민군의 협조 문제를

98) 프랑스 공사관과 뮌텔의 의병 인식에 관해서는 여진천, 2014, 「한말 천주교 성직자들의 의병관」, 『한국 천주교사 연구의 성찰과 전망』(한국교회사연구소 편), 한국교회사연구소 참조.

99)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6 조선VI·1893~1894』【90】전라도에서 위기에 처한 두 선교사(1894.8.30.).

100)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6 조선VI·1893~1894』【92】빌모와 모두네 두 선교사의 서울 귀환(1894.9.10.).

101) 『뮌텔주교일기』 I, 1894년 8월 21일.

102)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6 조선VI·1893~1894』【91】파리의 서울발 공문 수령 확인 및 조조 신부 피살사건 상세 보고 지시(1894.8.31.).

부각시키고자 하였다.¹⁰³⁾ 7월 23일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이 농민군이 왕실 반대에서 왕실 수호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고 일본군에 패한 청군과 연합하게 되었다는 논지이다. 아울러 뮌헨의 상세한 조사에 입각하여 살해 지시를 내린 사람으로 청군 섭지초 장군의 조카를 지목하였다.¹⁰⁴⁾ 이에 패배한 청군을 구호한 프랑스 측의 은혜를 저버리고 조조 신부를 살해한 청군의 만행을 비난하였다. 그리고 살해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조선정부에 협조 요청을 보냈다. 그리하여 프랑스 공사관은 조조 신부가 1894년 7월 29일 일요일 오후 5시 경에 살해된 것으로 파악했다. 그리고 신부를 수행하던 하인 역시 동학도의 선동으로 청군에게 피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조 신부가 살해당하자 동학도가 나머지 신부를 추적하였고 천주교 신자들을 위협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프랑스 정부는 조선 정부에 신부 2명의 서울 귀환에 감사하다는 공문을 보냈다.¹⁰⁵⁾ 심지어 두 신부를 금강 하구까지 안전하게 호위한 전주 관리에게 포상금을 몰래 지급하였다. 대신에 청국 정부로부터 배상금을 요청하여 받아냈다.¹⁰⁶⁾ 이 배상금은 조조 신부의 유가족과 조선 주재 선교회가 배분받기를 원한 뮌헨의 요구 때문이었다. 뮌헨은 배상금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였다.

이렇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은 프랑스와 프랑스 외교관들의 위신

103)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6 조선VI·1893~1894』【96】조조 신부 사망 관련 문서의 송부(1894.10.8.)

104)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6 조선VI·1893~1894』【96】조조 신부 사망 관련 문서의 송부(1894.10.8.);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6 조선VI·1893~1894』【98】조조 신부 살해 사건 관련 보고서 발송(1894.10.25.); 『뮌헨주교일기』 I, 1894년 10월 15일.

105)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6 조선VI·1893~1894』【106】전라도 선교사들의 무사 귀환에 대한 프랑스 외무부의 감사 표시(1894.12.5.).

106)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7 조선 VI·1895~1896』【5】조선 선교회가 피살된 조조 신부의 청국 배상금 배분을 요청(1895.2.8.(음)).

을 드높이는 일입니다. 청국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중요하게 여기는 조선 당국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며, 선교사들도 조선 내에서의 안전 문제에 더욱 안심할 수 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¹⁰⁷⁾

이어서 프랑스 공사관과 뮌헨의 오랜 소망이었던 法語學校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¹⁰⁸⁾ 그러한 조치는 프랑스의 위상을 강화하고 선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을 의미했다. 또한 조선정부는 전라도에서 선교하던 보두네 신부의 자택이 동학도에 의해 파괴되었음에 천주교측에 보상금을 지불하였다.¹⁰⁹⁾

한편, 뮌헨은 동학농민혁명이 진압된다는 소식을 접해 안심하면서도 대원군과 동학농민군이 내통했다는 사실에 반신반의하면서 이후 추이를 지켜보았다.¹¹⁰⁾ 대원군이 반일 인사라는 점에서 향후 대원군과 농민군의 연대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어서 대원군이 일본에 의해 하야하였음도 일기에 적었다.¹¹¹⁾ 이어서 뮌헨은 1894년 12월 31일 동학농민혁명이 진압되면서 불안을 벗어나고자 하는 조선인들의 천주교 입교를 기원하는 마음을 일기에 적었다.

저녁 식사 중에 서로에게 복된 새해를 기원. 하느님, 새해에는 바야흐로 저물어가는 해보다 더 평온하고 덜 소란스럽게 해 주시기를. 벌써부터 사건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는 보다 밝은 희망을 품게 된다. 모든 고을이 평화를 되찾았으며, 현재 전라도에서는 맹렬하게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

107)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7 조선 VI·1895~1896』 【5】 조선 선교회가 피살된 조조 신부의 청국 배상금 배분을 요청(1895.2.8.(음)).

108)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7 조선 VI·1895~1896』 【18】 조선 정부가 서울에 프랑스어 학교 개교 예정(1895.7.20.).

109)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7 조선 VI·1895~1896』 【20】 조선 정부가 자택 손상을 입은 보두네 신부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급(1895.8.22.).

110) 『뮌헨주교일기』 I, 1894년 10월 15일.

111) 『뮌헨주교일기』 I, 1894년 11월 27일.

관보는 거의 매일 동학도들의 우두머리 몇 명을 생포했다든지 사형에 처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지방의 신부들도 외교인 주민들이 그들에게 지난 날보다 훨씬 더 동정적임을 확인하고 있다. 동학도들이 만연시킨 공포로 지칠 대로 지친 사람들은 이제 이 나라에서 서양 사람을 보아도 마음을 놓는 것 같다. 이러한 경향이 복음으로 향한 마음의 길들을 우리에게 보다 넓게 열어 주기를!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Adveniat Regnum tuum!)¹¹²⁾

동학농민혁명이 좌절되는 순간 뮌헨은 천주교 교세의 확산을 기원하면서 새해를 맞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1월 3일 “새 왕국(nouveauroyaume)의 왕” 金開南이 체포되었음을 적었다.¹¹³⁾ 이날 일기에는 김개남의 체포에 앞서 전라도에서 서울로 귀환한 보두네와 빌모 두 신부의 전라도 파견을 반가운 소식이라고 적었다. 1월 7일에는 전봉준이 생포되어 서울로 압송되고 있는 소식을 일기에 적었다.¹¹⁴⁾ 그러면서도 뮌헨을 방문한 신부들이 신임 전라감사가 동학들에 대해 나악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¹¹⁵⁾ 뮌헨은 자신의 견해를 밝히지 않았지만 일기에 적은 것으로 보아 동조했으리라 보인다. 그것은 2월 17일 일기에서 동학도들이 선교사의 충고와 지원을 받은 주민들과 관장들에 의해 격퇴된 사건을 두고 “우리 천주교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는 썩 잘된 일이다”라고 적고 있기 때문이다.¹¹⁶⁾

112) 『뮌헨주교일기』 I, 1894년 12월 31일.

113) 『뮌헨주교일기』 I, 1894년 1월 3일. 김개남의 원래 본명은 永壽, 이명은 琪範인데 꿈에 신령이 나타나 손바닥에 ‘開南’ 두 자를 써주었다고 말하면서 개남으로 호를 삼았다고 한다. 개남은 남쪽으로 나라를 연다는 뜻이다(황현, 김중익 옮김, 2017, 『오동나무 아래에서 역사를 기록하다: 황현이 본 동학농민전쟁』, 역사비평사, 302쪽). 김개남의 호에 대한 이런 소문은 뮌헨의 귀에도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114) 『뮌헨주교일기』 I, 1894년 1월 7일.

115) 『뮌헨주교일기』 I, 1894년 1월 12일.

드디어 뮈텔 주교는 1895년 4월 24일 고종과 명성왕후의 측근 홍계훈을 만난 데¹¹⁷⁾ 이어 8월 28일 프랑스 공사관의 주선으로 고종을 만났다. 뮈텔의 유창한 조선어에 고종은 매우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대화를 이어나갔다.¹¹⁸⁾ 고종은 이 자리에서 “천주교는 내가 직접 이 나라를 통치하면서부터는 더 이상 박해를 받지 않았소”라고 하면서 천주교 보호 정책을 피력했다.¹¹⁹⁾ 이어서 뮈텔에게 프랑스 본국에서 전권공사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제 프랑스 공사관의 예측대로 조선 당국이 천주교 선교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가 약해질 것이라 전망했다. 조선정부의 이러한 조치들은 프랑스 정부의 발언권을 제고시키고 선교의 기반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프랑스 공사관에서는 1886년 조불수호통상조약에서 애매모호하게 규정된 선교 문제를 1858년에 체결된 청불조약(천진조약)에 따라 신앙의 자유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¹²⁰⁾ 심지어 조선 궁내부 대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천주교측은 재산권 문제에 개입하여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하였다.¹²¹⁾

3. 청일전쟁 관찰과 대응

프랑스 공사관과 선교사들은 일찍부터 청국과 일본의 갈등이 어떻게 폭발할지 주목하고 있었다. 조선 정부가 청국에 원군을 요청한 사실을

116) 『뮈텔주교일기』 I, 1894년 2월 17일.

117) 『뮈텔주교일기』 I, 1894년 4월 24일.

118)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7 조선 VI·1895~1896』 【22】 국왕의 서울 주재 가톨릭 주교 뮈텔 최초 접견(1895.9.10.); 『뮈텔주교일기』 I, 1895년 8월 28일.

119) 『뮈텔주교일기』 I, 1895년 8월 28일.

120) 최병욱, 2020, 『중국 근현대 천주교사 연구』, 경인문화사, 119~123쪽.

121)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7 조선 VI·1895~1896』 【132】 조선 가톨릭 선교회 소유 재산 처리문제에 대한 외부부의 동의와 후속 보고 지시(1896.12.30.).

두고 우려했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드디어 일본군은 6월 9일(음력 5월 6일) 인천에 도착했다가 다음 날 바로 서울로 들어왔다.¹²²⁾ 프랑스 공사관은 다음과 같이 본국에 보고하였다.

조선 정부는 우리에게 소요가 종료되었다고 통보. 1,000명의 일본군이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일본 공사관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에 도착. 제 의견으로는 일본군의 존재는 필요 없음. 이곳은 모든 것이 평온함. 프랑스 전함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 제물포에 정박함.¹²³⁾

프랑스 정부 역시 조선 정부와 마찬가지로 전주화약을 상황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일본군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국 전함이 제물포에 정박할 필요성을 덧붙였다. 물론 프랑스 역시 일본군이 제물포 조계지를 점령한 것에 항의하였다.¹²⁴⁾

뤼텔도 1894년 6월 13일 일본군의 서울 진입을 목격하였다.¹²⁵⁾ 이들 일본군은 오후 5시경 남대문, 구리개, 명동, 진고개를 거쳐 일본공사관에 도착하였던 것이다. 이어서 일본군의 서울 진입은 화교들에게 공포로 다가왔기 때문에 화교들이 귀국 준비에 나섰음을 전하고 있다.¹²⁶⁾ 이때 고종은 서구 열강들에게 양국의 철수를 위해 중재를 요청했다.¹²⁷⁾

122)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韓國近代史料編纂室 編, 1974, 『舊韓國外交關係附屬文書』 5(統署日記 3권), 1894년 5월 1일(음력), 5월 6일, 5월 7일; 『구한국외교관계부속문서』 日案, 문서번호 2835(1894.5.6)~2841(1894.5.7)번.

123)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6 조선VI·1893~1894』 【72】 소요 종료와 일본군의 도착(1894.6.13.).

124)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6 조선VI·1893~1894』 【76】 일본군의 제물포 외국 조계지 점령에 대해 외국 대표들이 항의(1894.6.25.).

125) 『뤼텔주교일기』 I, 1894년 6월 13일.

126)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6 조선VI·1893~1894』 【74】 청국 군대와 일본 군대의 도착(1894.6.20.).

127)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6 조선VI·1893~1894』 【77】 국왕이 일본군과 청국군의 철수를 위해 열강 대표들에게 알선을 요청(1894.7.3.).

그러나 프랑스 서리 공사 르페브르는 조선 정부가 이런 절차를 밟아도 아무런 결실을 얻을 수 없다고 대답했다. 단지 프랑스 자국민의 안전을 이유로 청국과 일본 정부에게 조선 정부의 이러한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만 전달하는 데 그쳤다. 프랑스 역시 수수방관자적인 자세를 취했다. 따라서 프랑스 공사관은 더 이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의 조선 내정 개혁 요구라든가 조선 정부의 자주적 개혁 의지를 논평없이 본국 정부에 보고하였다.¹²⁸⁾

그러면서도 프랑스 공사관은 일본군의 7월 23일 경복궁 점령을 본국에 상세하게 보고하였다.¹²⁹⁾ 이때 짧은 교전이 발생하였음을 덧붙였다. 물론 조선군이 먼저 일본군에게 사격했다는 일본측의 해명을 불신하였다. 프랑스 공사관이 파악한 정보와 상이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사건은 치밀한 계획에 의한 사건으로 인식했다. 그리고 프랑스 공사관은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이 곧이어 발생한 청일전쟁의 신호탄으로 여겼다. 뮌헨도 7월 23일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사실을 전해 들었다.¹³⁰⁾ 이어서 이들 일본군이 수원을 향해 떠났으며 곧 아산만에 도착할 것이라고 단정하였다.¹³¹⁾ 뮌헨 역시 청일전쟁을 예감하던 터였기 때문이다. 심지어 7월 31일 청군이 이미 일본군에게 항복했다는 소문도 들었다.¹³²⁾ 성환전투와 아산만 해전을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8월 1일자 전보를 통해 일본이 7월 31일 선전포고한 사실을 들었다.¹³³⁾ 이때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조조 신부가 청군에게 살해당했다는

128)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6 조선VI·1893~1894』 【81】 일본 공사가 조선 정부에 내정 개혁 요구(1894.7.17.).

129)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6 조선VI·1893~1894』 【84】 일본군의 궁궐 점령(1894.7.28.).

130) 『뮌헨주교일기』 I, 1894년 7월 23일.

131) 『뮌헨주교일기』 I, 1894년 7월 26일.

132) 『뮌헨주교일기』 I, 1894년 7월 31일.

133) 『뮌헨주교일기』 I, 1894년 8월 6일.

소식을 들은 지 4일 뒤였다.

이어서 프랑스 공사관은 아산만 전투와 성환에서 벌어진 청일 양군의 전투를 본국에 보고하면서 이러한 정보가 일본군 장교에서 나왔음을 밝히고 있다.¹³⁴⁾ 일본군측의 대외 선전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조선 정부가 청국과 맺은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을 비롯한 각종 협정이 파기되었음을 보고하였다¹³⁵⁾. 사실상 프랑스는 일본군의 승리를 예측하면서 다음을 기약했다. 이어서 조선정부가 군국기무처의 주도 아래 각종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고했다.¹³⁶⁾ 그러나 이러한 개혁이 지방의 소요, 개혁에 대한 적대적인 민심, 특히 재정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추진하지 못함을 덧붙였다.

이후 프랑스 공사관은 청일전쟁 전황을 지속적으로 본국에 보고하였지만 어떤 논평도, 어떤 대응 조치도 나오지 않았다. 단지 평양전투를 비롯하여 각종 전황을 보고하고 보고받는 데 그쳤다. 결국 1894년 9월 25일 보고에서 청군이 조선 영토 내에서 일본군에게 완패했음을 판정하는 문서를 본국에 송부했다.¹³⁷⁾ 프랑스 공사관의 주된 관심은 자국 신부의 안전과 보호에 집중되어 있었다.

반면에 뮌헨로 대표되는 선교사들이 청일전쟁의 추이에 촉각을 세웠다. 뮌헨의 8월과 9월 일기는 청일전쟁 전황으로 도배되었다. 예컨대 9월 21일 일기에서는 평양전투 전황을 상세하게 적었다.

134)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6 조선VI·1893~1894』 【86】 청국군과 일본군의 성환 교전(1894.8.7.).

135)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6 조선VI·1893~1894』 【89】 조선 정부가 일본의 요구로 청국과의 모든 협정 파기(1894.8.25.).

136)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6 조선VI·1893~1894』 【103】 조선 정부의 개혁(1894.11.20.).

137)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6 조선VI·1893~1894』 【95】 일본군의 평양 점령(1894.9.25.).

최근에 일본인들이 발표한 전보 내용들. 9월 15일, 그들의 군대가 4면에서 일시에 平壤을 공격하여 평양을 장악하였으며, 청군 20,000명을 사살하였다고 한다. 제물포에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의주에서 평양에 이르기까지 100,000명이 넘는 청군들이 있었다고 한다. 17일에 도착한 뒤 테르트르, 르 장드르 신부들은 일본군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으며, 적어도 르 장드르 신부는 평양에 30,000명 정도의 청군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¹³⁸⁾

일기의 이러한 내용은 프랑스 공사관이 본국에 보고한 9월 25일보다 나흘이나 빠른 내용이다.¹³⁹⁾ 천주교가 각 지방 조직을 활용하여 정보를 입수한 결과였다. 심지어 프랑스 공사관을 통해 일본군이 식량조달 문제로 만주 봉천을 공격하기보다는 뤼순에 대한 해상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음을 전해들었다.¹⁴⁰⁾ 그리고 11월 26일 일기에 일본군이 뤼순을 점령했으며 전사자는 200명인 데 반해 청국인들은 사상자가 2만 명이 있음을 적고 있다.¹⁴¹⁾ 이어서 1895년 3월 22일 청국과 일본이 체결할 강화 조약 소식을 전한 뒤¹⁴²⁾ 4월 9일에는 3월 31일 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을 일기에 적었다.¹⁴³⁾ 곧바로 조약 내용을 입수한 뒤 4월 19일 일기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1. 조선의 독립을 인정
1. 일본에게 타이완(臺灣)을 양도
1. 봉천(奉天, Moukden) 지방의 남부 지역의 양도

138) 『뮈텔주교일기』 I, 1894년 9월 21일.

139)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6 조선VI·1893~1894』 【95】 일본군의 평양 점령(1894.9.25.).

140) 『뮈텔주교일기』 I, 1894년 10월 16일.

141) 『뮈텔주교일기』 I, 1894년 11월 24일.

142) 『뮈텔주교일기』 I, 1895년 3월 22일.

143) 『뮈텔주교일기』 I, 1895년 4월 9일.

1. 전쟁 배상금(金 三億兩)

1. 일본인들에게 보다 큰 편의와 이익이 돌아가도록 통상 조약을 개정

1. 3주 후 지푸(芝罘)에서 이 조약을 비준¹⁴⁴⁾

뫼텔은 이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뒤 일기에 적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는 영국이 청의 타이완 할양에 어떻게 나올지, 러시아는 남만주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고종의 대리인 홍계훈을 만나 시모노세키 조약을 둘러싼 서구 열강들의 이해 관계가 충돌할 것임을 알려주었다.¹⁴⁵⁾ 그는 전권공사가 여전히 부재한 프랑스 공사관을 대신하여 조선 정국에 깊이 관여하기 시작한 셈이다. 따라서 동학을 반도, 폭도로 인식하였고 선교사 보호에 힘을 기울였던 뫼텔이 향후 조불 관계를 주도하면서 교안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에 뫼텔의 정보력과 인적 관계에 밀린 프랑스 공사관은 뫼텔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구에 지나지 않았다. 동학농민혁명의 좌절은 프랑스 공사관이나 뫼텔에게는 선교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다.

맺음말

조선주재 프랑스 외교관과 선교사들은 1886년 조불수호통상조약 체결 이래 조선정부의 천주교 정책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1866년 병인사옥과 이후 가혹한 금압에 따른 트라우마가 컸기 때문이다. 조불수교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조선 정부의 용인이 따랐지만 프랑스 선교사의 활동은 유생들로부터 배척을 받았고 관료들의 탄압을 초

144) 『뫼텔주교일기』 I, 1895년 4월 19일.

145) 『뫼텔주교일기』 I, 1895년 4월 25일.

래했기 때문이다. 프랑스 공사관이 일찍부터 선교 문제에 개입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프랑스 외교관과 선교사들은 천주교 정책을 결정하는 조선정부의 동향과 정국 변동을 정시든 수시든 각각 본국 외무부와 파리 본부에 보고하였다. 조선정부 역시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을 겪으면서 청국과 일본에 의존하는 외교 전략이 매우 위험함을 감지하고 외교의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均勢外交戰略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 외교관과 선교사들의 이러한 방침은 가시적 효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그것은 고종 스스로 프랑스 정부에 대리 공사나 전권공사를 서울에 파견해 주길 강력하게 요청한 데서 짐작할 수 있다. 이에 프랑스 공사관은 조선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고무되어 프랑스 선교사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넘어서서 조선인 천주교 신자까지 보호하기 시작했다.

선교사들의 이러한 공격적 선교와 프랑스 정부의 지원 그리고 이에 따른 여러 教案들은 평소 천주교에 반감을 가졌던 동학도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특히 교안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동학과 마찬가지로 邪教로 규정한 천주교의 선교를 용인하는 정부의 이중 정책에 대한 불만이 커져 갔다. 따라서 동학 교단과 신도들은 교조신원을 통해 관리들의 수탈을 면할뿐더러 천주교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동학 公認과 종교 자유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한편, 뮌헨도 천주교에 반대하는 동학의 동향을 주목하였다. 동학도의 조선 왕조 전복 시도는 천주교 선교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더욱이 동학을 “이상한 교리와 행동을 가진 異敎의인 교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프랑스 공사관은 동학 자체보다는 鄭鑑錄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 그것은 정감록에 조선왕조가 1892년에 멸망한다고 예언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894년 2월(양력)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하자 프랑스 공사관도 동학농민혁명 초기와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자국 선교사 안전 문제에 촉각을 세웠다. 조선정부의 외국인 철수 요청도 있거니와 공사관 역시 사태

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뫼텔에게 선교사 철수를 요청했다. 그리고 프랑스 외교관과 선교사들의 희망과 달리 전라도에서 활동하고 있던 조조 신부가 청군에게 살해당했다.

이에 프랑스 공사관과 뫼텔은 조조 신부의 피살 원인과 책임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조선정부에 압력을 가했고 청국 정부에 살해자 청군 처벌과 배상금을 요구했다. 또한 프랑스 공사관에서는 청군과 동학농민군의 연대 문제를 부각시켰다. 심지어 프랑스 공사관은 이를 빌미로 조선 정부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프랑스 외교관과 선교사들은 동학농민군의 행태와 청일전쟁의 전개 과정을 관찰하는 가운데 동학농민군이 1894년 이전과 달리 실제로는 반일 반봉건을 지향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이들은 동학을 비롯한 반정부운동을 鄭鑑錄에 의거한 폭도들의 반천주교 운동으로 몰아가면서 자신들의 선교 정책을 정당화하고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투고일 : 2024. 9. 28. 심사완료일 : 2024. 11. 7. 게재확정일 : 2024. 11. 15.

참고문헌

<자료>

- 고려대학교 독일어권문화연구소 편, 2019, 『독일어외교문서 한국편』.
- 국사편찬위원회 편집부 엮음, 2004, 『프랑스외무부문서』, 국사편찬위원회.
-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영남교회사연구소 편, 1995, 『대구의 사도 김보록(로베르)신부 서한집-1』.
-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엮음, 2009, 『동학농민혁명국역충서 5, 동학문서』.
- 뫼텔, 한국교회사연구소 엮음, 2009, 『뫼텔주교일기』 I, 한국교회사연구소.
- 오지영, 1940, 『동학사』, 영창서관.
- 鄭喬, 변주승 외 옮김, 2004, 『大韓季年史』, 소명출판사.
- 최석우, 1983, 「COMPTE RENDU de la Societe des M.E.P. -빠리외邦傳教會 年報(1878~1894)」, 『교회사연구』 4, 한국교회사연구소, 155~157쪽.
- 한국교회사연구소, 1984, 『서울교구연보(I) 1878~1903』, 천주교명동교회.
- 황현, 김종익 옮김, 2017, 『오동나무 아래에서 역사를 기록하다: 황현이 본 동학농민전쟁』, 역사비평사.
- 『舊韓國外交關係附屬文書』

<단행본>

- 김형중, 2024, 『19세기 후반 한중관계사론: 천조상국과 속국자주의 딜레마』,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박맹수, 2011, 『개벽의 꿈, 동아시아를 꿈꾸다』, 모시는 사람들.
- 배항섭, 2002, 『조선후기 민중운동과 동학농민전쟁의 발발』, 경인문화사.
- 최병욱, 2020, 『중국 근현대 천주교사 연구』, 경인문화사.
- 한국학문헌연구소, 1979, 『東學思想資料集』, 아세아문화사.
- 현광호, 2011, 『서구 열강과 조선』, 채륜.
- _____, 2019, 『프랑스가 본 한국근대사』, 선인.

<논문>

- 구선희, 2009, 「조선을 근대 식민지로 만들려 했던 중국인, 위안스카이」, 『역사비평』 86, 역사비평사, 340~364쪽.
- 金洋植, 1989, 「1901年 濟州民亂의 再檢討」, 『濟州道研究』 6, 제주학회, 125~165쪽.

- 김태웅, 2002, 「정부의 프랑스 정책과 천주교-왕실과 뫼텔의 관계를 중심으로」, 『역사연구』 11, 역사학연구소, 177~196쪽.
- _____, 2011, 「조선 말, 대한제국기 뫼텔 주교의 정국 인식과 대정치권 활동」, 『교회사연구』 37, 한국교회사연구소, 95~123쪽.
- 박맹수, 2007, 「敎祖伸冤運動期 參禮集會에 대한 再檢討」,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8,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23쪽.
- 朴贊植, 1995, 「韓末 天主敎會와 鄉村社會 -‘敎案’의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한민, 2018, 「1888년 ‘유아납치’ 소동이 전말과 각국의 대응」, 『역사와 현실』, 109, 한국역사연구회, 409~452쪽.
- 배항섭, 2023, 「동학과 동학농민군의 대외인식」, 『한국사연구』 201, 한국사연구회, 215~251쪽.
- 신의식, 2002, 「曾國藩의 西敎 인식 -태평천국과 楊洲·天津敎案 처리를 중심으로」, 『교회사연구』 18, 한국교회사연구소, 181~201쪽.
- 양인성, 2014, 「1891년 대구 로베르 신부 사건 연구」, 『한국 천주교사 연구의 성찰과 전망』(한국교회사연구소 편), 한국교회사연구소.
- 여진천, 2014, 「한말 천주교 성직자들의 의병관」, 『한국 천주교사 연구의 성찰과 전망』(한국교회사연구소 편), 한국교회사연구소.
- 윤세철, 1982, 「天津敎案과 청조 외교의 변용」, 『역사교육』 30:31, 역사교육연구회, 183~211쪽.
- 이경원, 2013, 「삼례취회시기 전라도 동학교도의 봉기계획 구상과 신원운동의 변화」, 『1893년, 동학농민혁명 전야를 밝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이영호, 2016, 「선운사 석불비결사건과 정감록」, 『동학학보』 40, 한국동학학회, 277~312쪽.
- 이원순, 1969, 「미공개사료 Mutel 문서」, 『한국사연구』 3, 한국사연구회, 161~178쪽.
- 李元淳, 1973, 「朝鮮末期 社會의 「敎案」 研究」, 『歷史敎育』 15, 역사교육연구회, 71~139쪽.
- 이원순, 1992, 「한불조약과 종교자유의 문제」, 『조선시대사논집』, 느티나무.
- 張東河, 2000, 「韓末 敎案의 성격」, 『민족사와 교회사』, 한국교회사연구소.
- 장영민, 1998, 「동학사상과 민중신앙」, 『동학연구』 2, 한국동학학회, 101~128쪽.
- 奎旌海, 1999, 「광무년간의 산업화 정책과 프랑스 자본·인력의 활용」, 『국사관논총』 84, 국사편찬위원회.
- 조광, 1985, 「동학농민혁명 관계사료 拾遺-Mutel의 자료를 중심으로-」, 『사총』 29, 고대사학회, 205~222쪽.
- _____, 1994, 「조선후기 민중사상과 동학농민전쟁」, 『백제문화』 23, 공주대학교 백제

- 문화연구소, 15~20쪽.
- ____, 2003, 「19세기 후반 서학과 동학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동학학보』 6, 동학학회, 51~83쪽.
- 최석우, 1982, 「한불조약과 신교자유」, 『한국교회사의 탐구』, 한국교회사연구소.
- 한승훈, 2021, 「선운사 석불비결사건에 대한 종교사적 검토」, 『전북학연구』 3, 전북연구원, 73~102쪽.

〈Abstract〉

The Awareness and Response of French Diplomats and Missionaries in Chosŏn to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d the Sino-Japanese War

Kim, Tae Woong*

France is a country that should be noted in the development of modern Korean history. This is because the Chosŏn government's suppression of Catholicism and the French government's active missionary work caused the 'Byeonginyangyo'(French Invasion of Korea in 1866). However, after Chosŏn and France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in 1886, French diplomats sought to strengthen their influence by taking advantage of the Chosŏn government's balanced foreign policy. Above all, he wanted to support Catholic missions and protect believers.

This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was never smooth. This is because Donghak, which grew on the basis of the contradictions of the Chosŏn Dynasty's system, the Western invasion, and the critical consciousness of Catholicism, grew rapidly with the support of the people and emerged as the subject of the Peasant Revolution in 1894. Before and after the Peasant Revolution, French diplomats and missionaries confirmed that Donghak was aiming for dissident system and anti-Catholicism, and they closely watched Donghak's activities. In addition, when the Sino-Japanese War broke out following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they

* Department of History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maintained a neutral attitude while making every effort to rescue missionaries and protect believers. Furthermore, Bishop Mutel, who is in charge of Chosŏn Catholicism, put pressure on the Chosŏn government using the death of a Catholic priest as an excuse.

On the other hand, French diplomats and missionaries observed the behavior of the Donghak Peasant Army and the development of the Sino-Japanese War, confirming that the Donghak Peasant Army, unlike before 1894, was actually aimed at anti-Japanese and anti-feudalism. Nevertheless, they tried to justify their missionary policies and strengthen their influence by driving the Donghak and other anti-government movements to the mob's anti-Catholic movement based on the 'Chŏnggamnok'.

Key word : Chŏnggamnok, Mutel, Balanced Forien Policy, Gyoan(Roman Catholic Trouble), Anti-Japanese and Anti-Feudalism

